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 학위논문

지역 내 외국인 유입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oreigners' Inflow
on Social Trust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전공
하 승 현

지역 내 외국인 유입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oreigners' Inflow
on Social Trust

지도교수 정 창 무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전공
하 승 현

하승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질적 집단의 공존은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발생시켜 왔다. 상호 간의 물 이해와 편견으로부터 기인하는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적대심, 집단 간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한 논의와 더불어 상호 간의 접촉 혹은 협력을 통한 이질적 집단에 대한 관용, 포용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논의가 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 간 이질성을 먼저 경험한 유럽 및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로 지역 사회 내의 민족 다양성과 소득격차 등이 개인 및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으나 한국 사회의 경우 이러한 다양성 혹은 다 문화 현상이 개인 및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한국 사회가 비교적 오랜 기간 단일 민족성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 사회 내의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성의 확대와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변화 중 지역 사회 내의 사회적 신뢰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탐구 하였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모두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적, 체류자격, 거주지역, 소득수준, 차별경험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들을 특정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지역 내 평균적인 소득수준으로 대변될 수 있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지역인 서울특별시 424개 행정동을 크게 상, 중, 하위 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류지역별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변동의 차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방문취업, 영주, 결혼이민, 방문동거, 거주 등 취업·경제활동과 관련된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내국인의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이나 일

반연수와 같은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동반, 기타, 기업 투자와 같은 투자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편견과 선입관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차별경험과 결부시켜 보았을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위, 중위, 상위 지역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변동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높은 중위와 상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의 사회적 신뢰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된다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이들과 사회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특정지을 수 없는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손상은 잠재적으로는 해결될 여지가 남아있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한 태도 다시 말해 수용성의 경우 투자 혹은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외국인을 가족, 친구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요어 : 사회적 신뢰, 외국인 유입, 집단 간 이질성, 갈등 이론, 접촉 이론, 맥락효과

학 번 : 2011-30273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1
2. 등록외국인의 지리적 군집 3
3.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4. 외국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7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8

1. 연구의 방법 8
2. 연구의 구성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1

제 1 절 외국인의 거주지 선택 11

제 2 절 이질적 집단의 접촉 12

1. 갈등 가설과 접촉 가설 12
2. 사회적 혼합 14

제 3 절 사회적 신뢰 17

1. 사회적 자본 17
2. 사회적 신뢰 18

제 4 절 사회적 신뢰 영향 요인	19
1. 외국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19
2. 원주민 이탈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21
3. 경제적 계층 혼합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21
4. 근린환경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26
 제 3 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29
제 1 절 연구문제	29
1. 외국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29
2.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유출에 관한 논의	30
 제 2 절 분석 데이터 정의	30
1. 서울서베이	31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공간정보	32
3. 인구주택총조사	32
 제 3 절 측정 개념에 관한 논의	33
1. 사회적 신뢰	33
2. 외국인의 정의	35
 제 4 절 탐색적 자료 분석	40
1. 서울서베이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거주 외국인의 특성	40
2. 서울특별시 내 등록외국인 현황	55
3.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동	68
4. 지역별 주택가격 분포	70

제 5 절 연구가설 설정	78
1. 외국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78
2. 인구 유출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81
3. 거주환경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81
4. 연구가설의 종합	83
 제 4 장 사회적 신뢰 영향 요인 분석	84
 제 1 절 외국인과의 접촉 모형	84
1. 다수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84
2. 변수별 기초통계량	85
3. 외국인과의 접촉이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91
4. 외국인과의 접촉이 이웃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97
 제 2 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	102
 제 5 장 결 론	107
 제 1 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107
1. 연구결과 요약	107
2. 정책적 함의	110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13
1.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11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4

표 목 차

[표 2-1] 연구의 전개	10
[표 3-1] 행정동별 평균 신뢰 -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34
[표 3-2] 행정동별 평균 신뢰 - 이웃에 대한 신뢰	35
[표 3-3] 국내 체류 중인 분류별 외국인	37
[표 3-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38
[표 3-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39
[표 3-6] 국적별 응답자 수 및 비율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41
[표 3-7] 체류자격별 응답자 수 및 비율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41
[표 3-8] 국적별 ‘기타 90일 이상 비자’ 비중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42
[표 3-9] 출신국가별 소득차이 (Tukey’s HSD Test)	45
[표 3-10] 체류자격별 소득차이 (Tukey’s HSD Test)	48
[표 3-11] 국적별·체류자격별 구성 비율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49
[표 3-12] 국적별 거주지 선택요인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51
[표 3-13] 체류자격별 거주지 선택요인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52
[표 3-14] 서울특별시 내 국적별 외국인 수 (2015)	56
[표 3-15] 서울특별시 내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 (2015)	60
[표 3-16] 체류자격별 외국인 밀집지역 - 상위 15개 행정동	63
[표 3-17] 행정동·체류자격별 외국인 수의 상관계수행렬	64
[표 3-18] 서울특별시 내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	66
[표 3-19] 서울특별시 내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계속)	67
[표 3-20] 외국인 비율 상위 10개 행정동 (2015)	69
[표 3-21] 자치구별 평균주택가격 (단위:만 원)	71
[표 3-22]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 (단위:만 원)	72
[표 3-23]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을 이용한 군집분석 결과	73
[표 3-24] 주택가격분위 (단위:만 원)	76
[표 3-25] 행정동별 저렴주택비율 - 상위 20개 행정동	77
[표 4-1] 개인수준 변수 기초통계량 - 연속형 변수	86
[표 4-2] 개인수준 변수 기초통계량 - 이산형 변수	87
[표 4-3] 서울특별시 행정동 변동	88
[표 4-4] 지역수준 변수 기초통계량 - 행정동 기준	90
[표 4-5] 무제약 모형 -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92
[표 4-6] 임의절편 모형 1수준 -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93

[표 4-7] 임의절편 모형 2수준 -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96
[표 4-8] 무제약 모형 - 이웃에 대한 신뢰	98
[표 4-9] 임의절편 모형 1수준 - 이웃에 대한 신뢰	99
[표 4-10] 임의절편 모형 2수준 - 이웃에 대한 신뢰	101
[표 4-11]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 기초통계량	104
[표 4-12]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 상관계수행렬	104
[표 4-13] 임의절편 모형 2수준 -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105
[부록 표 - 1] 출신국가별 분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기준	123

그 립 목 차

[그림 1-1]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 동향	2
[그림 1-2] 자치구별 등록외국인의 변동 (1995 ~ 2015)	4
[그림 1-3] 자치구별 한국인 및 외국인 분포(1995~2015)	4
[그림 1-4] 행정동별 등록외국인 분포 (2015)	5
[그림 1-5]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그림 3-1] 서울서베이 2015 설문지 - 사회적 신뢰	33
[그림 3-2] 체류외국인의 분류	36
[그림 3-3] 국적별·체류자격별 분포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42
[그림 3-4] 국적별 소득분포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44
[그림 3-5] 국적별 소득분포(Boxplot)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44
[그림 3-6] 체류자격별 소득분포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47
[그림 3-7] 체류자격별 소득분포(Boxplot)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47
[그림 3-8]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50
[그림 3-9] 국적별 거주지 선택요인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51
[그림 3-10] 체류자격별 거주지 선택요인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53
[그림 3-11] 국적별 외국인이 느끼는 차별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54
[그림 3-12] 체류자격별 외국인이 느끼는 차별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55
[그림 3-13] 한국계 중국인의 주 거주지역 변동 (2006 ~ 2015)	57
[그림 3-14] 중국인의 주 거주지역 변동 (2006 ~ 2015)	57
[그림 3-15] 미국인의 주 거주지역 변동 (2006 ~ 2015)	58
[그림 3-16] 한국계 중국인의 주 거주지역 (행정동 기준, 2015)	58
[그림 3-17] 중국인의 주 거주지역 (행정동 기준, 2015)	59
[그림 3-18] 미국인의 주 거주지역 (행정동 기준, 2015)	59
[그림 3-19] 자치구별 분포 - 방문취업(H-2)	61
[그림 3-20] 자치구별 분포 - 영주(F-5)	61
[그림 3-21] 자치구별 분포 - 유학(D-2)	61
[그림 3-22] 자치구별 분포 - 결혼이민(F-6)	61
[그림 3-23] 행정동별 분포 - 방문취업(H-2)	62
[그림 3-24] 행정동별 분포 - 영주(F-5)	62
[그림 3-25] 행정동별 분포 - 유학(D-2)	62
[그림 3-26] 행정동별 분포 - 결혼이민(F-6)	62
[그림 3-27] 자치구별 한국인(적색)·외국인(녹색) 분포	68

[그림 3-28] 외국인 비율 상위 10개 행정동의 동별	69
[그림 3-29] 자치구별 주택가격 분포 (단위:만 원)	71
[그림 3-30]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 분포	74
[그림 3-31] 지니계수의 도식화	75
[그림 3-32] 행정동별 주택가격 불평등	75
[그림 3-33] 행정동별 저렴주택 비율	78
[그림 3-34] 선진국 출신	79
[그림 3-35]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분포	79
[그림 3-36] 연구가설의 종합	83
[그림 4-1] 행정동별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평균	89
[그림 4-2] 행정동별 이웃에 대한 신뢰 평균	9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국내 거주 외국인¹⁾의 증가

비교적 오랜 기간 단일 민족성을 유지해온 한국 사회는 최근 20년 간 급격한 속도로 외국인 인구를 수용해오고 있다. 1992년 기준 6만 명 수준이던 국내 외국인 등록인구²⁾는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2.22%에 해당하는 약 114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특별시의 경우 1992년을 기준으로 약 3만 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이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난 2015년에는 약 27만여 명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서서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외국인의 양적인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다국적 기업의 입주, 교육 및 문화 부문의 교류 등과 같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등록외국인의 대부분은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동과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숙련 노동력 수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들을 출신국가, 체류자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보았을 때 잘 드러나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출신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선진국³⁾으로 분류되는 미국(3.35%), 대만(3.18%), 일본(3.05%), 프랑스(0.69%) 출신 외국인보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국계 중국인

1) 본 연구에서 외국인(foreigners)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natives)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주하며 분석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전체 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을 외국인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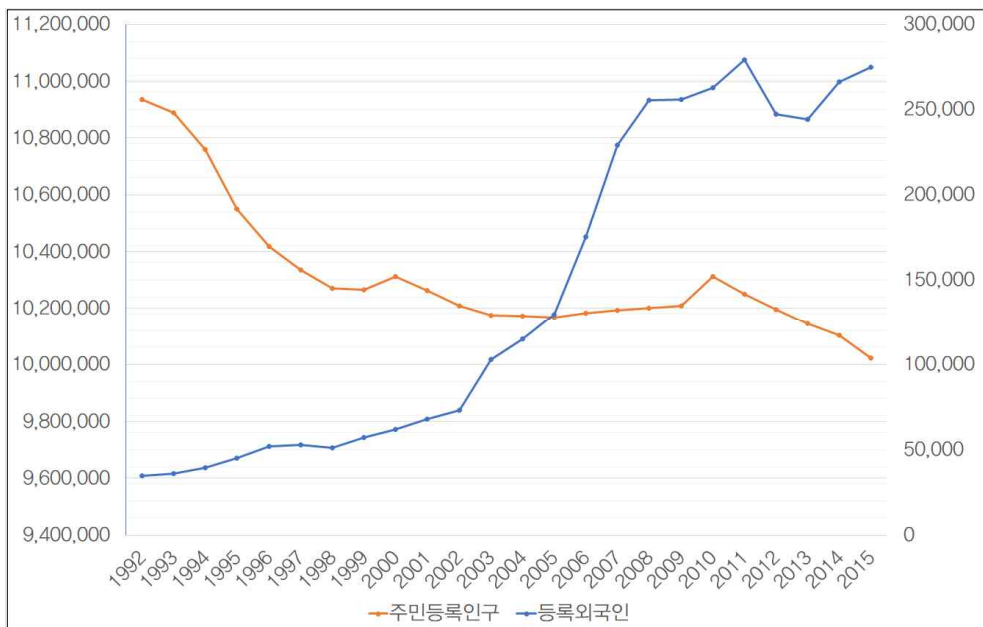
2) 국내에 거주 중인 총 외국인 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단기체류자로 구성되며 등록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수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류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2015) 상에 제시된 기준을 준용하였다.

(51.71%), 중국(20.59%), 베트남(3.11%) 등에서 유입된 외국인들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서울특별시 전체 등록외국인 대비 개발도상국 출신 비율이 약 84.5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중을 살펴보면 대표적 취업비자라 할 수 있는 방문취업(H-2)의 비중이 전체 체류 목적 중 34.99%로 가장 높으며 영주(F-5, 16.64%), 유학(D-2, 9.29%), 결혼이민(F-6, 7.92%), 방문동거(F-1, 6.40%) 등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아 상기한 것과 같이 국내 등록외국인의 대다수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출신국가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자료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내 등록외국인 수의 시계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고용허가제(2004), 방문취업제(2007) 등으로 대표되는 저임금·비숙련 노동력 수입 정책의 시행이 등록외국인 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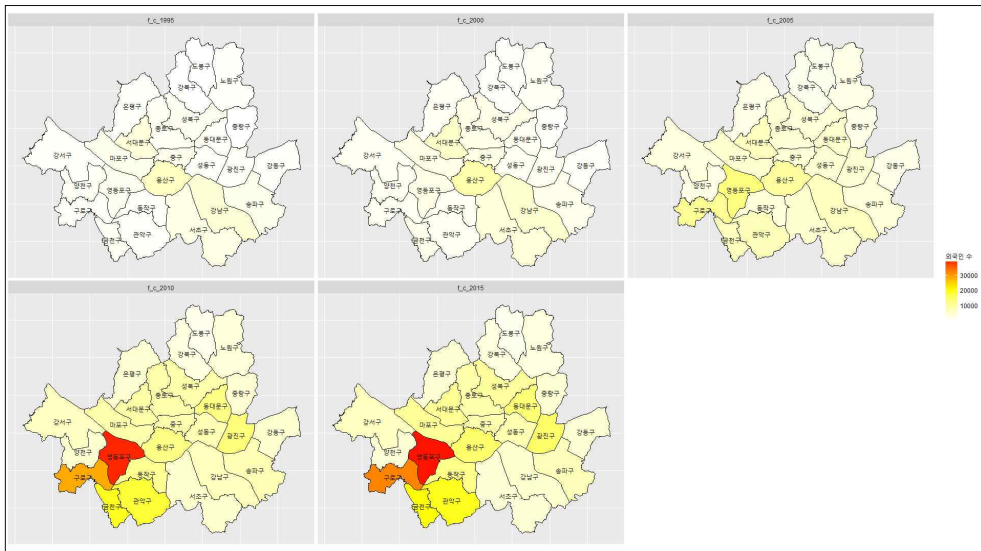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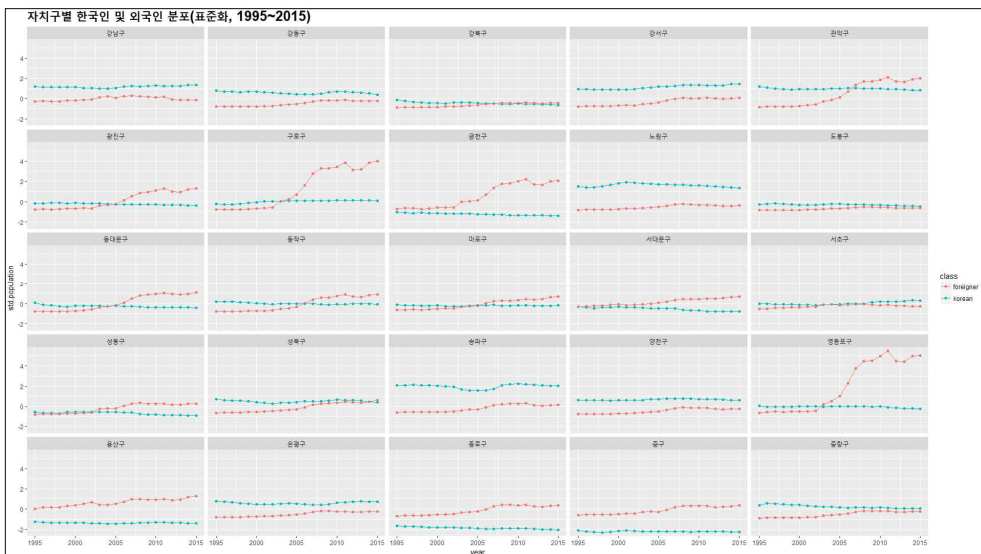
2. 등록외국인의 지리적 군집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비교적 등에서 유입된 외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치구별 등록외국인의 변동 또한 국내 유입 외국인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용산구(14.23%), 강남구(9.89%), 서대문구(9.17%), 서초구(6.59%), 중구(5.56%) 등 비교적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주로 분포하였던 외국인 비중(1995년 기준)은 약 20년 뒤인 2015년을 기준으로 영등포구(14.30%), 구로구(11.82%), 금천구(7.23%), 관악구(7.04%), 광진구(5.39%) 등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밀집한 공업 지역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등록외국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지 선택 성향과 연관이 있는데 대체로 이들은 교통이 편리한 곳(34.32%), 동포 등 외국인이 많은 곳(29.44%),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18.08%), 직장과 가까운 곳(11.96%) 등을 거주지로 선호하며 상기한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2] 자치구별 등록외국인의 변동 (1995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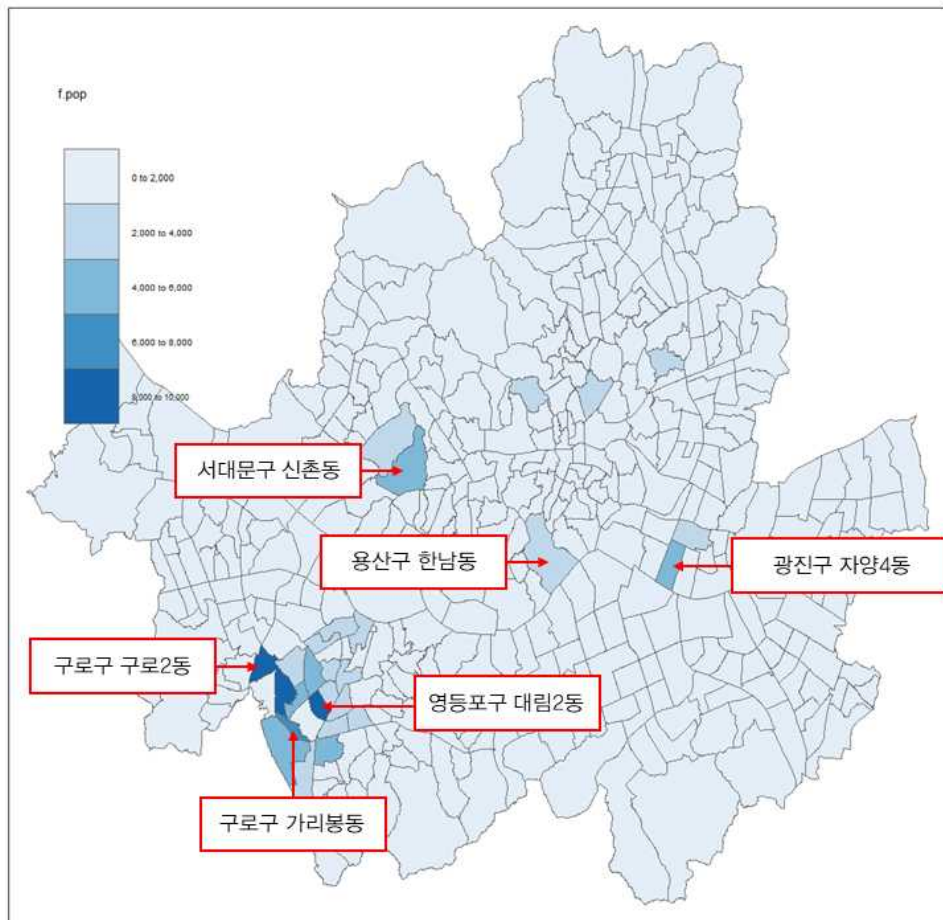


[그림 1-3] 자치구별 한국인 및 외국인 분포(1995~2015)

이러한 외국인의 거주지 집중 현상은 행정동 단위로 살펴볼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영등포구 대림2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각각 40.69%, 40.27%

로 절반에 가까운 구성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기준 등록외국인은 2015년 7월 송파구 장지동에서 분동된 송파구 위례동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423개 행정동에 빠짐없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의 존재가 서울시민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4] 행정동별 등록외국인 분포 (2015)

3.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이러한 외국인 인구,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력의 탄력적 공급, 내수 진작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외국

인과 내국인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다양한 가치관, 언어, 문화, 종교에 대한 관용(tolerance) 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비숙련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자 증가로 인하여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거나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가치관, 문화, 종교 차이 등과 같은 다양성(diversity)에서 기인하는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인하여 집단 간 편견(prejudice) 혹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림 1-5]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실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외국인과 직접 대면하는 사회구성원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교육,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그들과 접촉하지 않은 사회 구성원에게 전파·학습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편견은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꺼림, 두려움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외국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

도시구조의 측면에서 이러한 꺼림과 두려움은 사회구성원들의 거주지 선택 및 이주의향에도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원주민들이 외국인 밀집지를 떠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로 인하여 지역 주택가격의 하락, 근린환경의 악화 등과 같은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역은 기존 사회구성원으로부터의 게토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이주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이질감은 대규모 이주민으로 인한 슬럼화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박효민 외, 2015).

4. 외국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상기한 외국인의 거주지 밀집 성향과 내국인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차이나타운과 같은 특정 외국인 집단이 지배적인 지리적 경계가 생겨나거나 내국인과 외국인의 거주지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될 경우 각 집단 간의 접촉 및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서로를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함에 따라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이 저해되거나 구성원 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오랜 기간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해온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우 인종, 민족 다양성이나 집단 간 거주지 분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저해 혹은 사회적 자본 감소현상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가 존재하나 오랜 기간 단일 민족, 순혈주의적 민족 구성을 이루어온 대한민국의 경우 이러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할 실정이다.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더불어 거래비용 감소,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본이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손실될 경우에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붕괴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산성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거나 사회적 자본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지역 사회 내 인구 구조 및 거주환경 변동에 대하여 탐구하며 이를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통합 및 신뢰 제고를 위한 외국인 거주지 및 거주환경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이질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서베이(외국인) 자료, 연도별·행정동별 외국인 분포, 그리고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2015 자료를 이용하여 국적별 외국인을 선진국 출신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는 변수로써 경제적 편익, 호혜성과 관련된 측면과 관련이 있는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선택하였으며 지역 사회에 대한 통제, 관리와 관련된 관점에서 ‘이웃에 대한 신뢰’를 채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한정된 주택재고 상황 하에 외국인의 유입이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국인 인구의 유출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협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신뢰의 변동이 외국인의 경제적 지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종, 문화, 언어 등 비경제적인 요소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적 계층의 혼합 및 저렴주택 비율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거주지 선택 요인으로써 작용하며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 또한 검토하였다.

외국인, 경제적 계층 혼합, 근린환경을 포함하는 상기한 세 가지 측면의 요소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서베이,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공간정보,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수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분석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내 외국인 유입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거주지 및 근린환경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에 대한 개관으로 외국인 유입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고(제1절) 연구의 방법과 논문의 이론적 전개에 관한 사항을 소개한다(제2절).

제2장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외국인(제1절), 이질적 집단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제2절), 사회적 자본 및 신뢰(제3절),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제4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도출된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과 관련된 장으로 외국인과의 접촉, 내국인의 유출, 경제적 계층의 혼합, 근린환경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제1절) 이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의 증의(제2절) 및 측정 개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제3절). 이후 활용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제4절)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제5절).

제4장은 실증분석과 관련된 장으로 전술한 이론적 기반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층 혼합, 근린환경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였으며(제1절)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서도 서술하였다(제2절).

마지막으로 제5장은 연구의 결론으로 제4장에서 도출된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해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제1절)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서 기술하였다(제2절).

[표 2-1] 연구의 전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외국인의 거주지 선택
	제2절 이질적 집단의 접촉
	제3절 사회적 신뢰
	제4절 사회적 신뢰 영향 요인
제3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제1절 연구문제
	제2절 분석 데이터 정의
	제3절 측정 개념에 관한 논의
	제4절 탐색적 자료 분석
	제5절 연구가설 설정
제4장 사회적 신뢰 영향 요인 분석	제1절 외국인과의 접촉 모형
	제2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
제5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외국인의 거주지 선택

외국인 혹은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들의 정착지 선택 요인(정지은 외, 2011; 이진영·남진, 2012), 공간적 분포(박세훈·정소양, 2010; 하성규 외, 2011; 박윤환, 2011; 최은진·김의준, 2011)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들과의 수용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이선화, 2007; 박신영 외, 2012; 민지선·김두섭, 2013; 박효민 외, 2016)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외국인의 거주지 선택 요인과 관련하여 외국인들은 초기 정착민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들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집단별로 군집하는 성향을 보이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저임금·비숙련 사업체의 분포(이진영·남진, 2012)나 외국인 학교나 외국인 지원센터의 존재(정지은 외, 2011) 또한 이들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거주지 선택 결과로 결정되는 외국인들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논의로 국적별·체류자격별 분포(박세훈·정소양, 2010)를 살펴 보거나 내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현상(하성규 외, 2009; 박윤환, 2011; 최은진·김의준, 2011)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며 특히 박세훈·정소양(2010)의 연구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과의 공간적 분리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문화수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거주지역 내 외국인 비중이 높고,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동남아시아인, 일본인과 인접할 경우 내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인식을 가진다는 연구(민지선·김두섭, 2013)나 외국인 밀집지역 내 거주하는 내국인의 경우 본인의 주거환경, 외국인 유입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박효민 외, 2016)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갈등과 범죄를 유발할 것이라는 내국인들의 인식조사 결과(박신영 외, 2012)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들과 오랜 기간 접촉하면서 이들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한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들을 내국인들과 동등한 이웃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연구결과(이선화, 2007)는 외국인의 유입과 이들과의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와 내국인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외국인들은 그들의 특수한 거주지 선호 성향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은 대체로 이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내국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유발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 2 절 이질적 집단의 접촉

1. 갈등 가설과 접촉 가설

사람들 간의 접촉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특성과 특정 사회의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논의는 각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attitude) 혹은 편견(prejudice)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개인이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 가치관, 피부색 등을 공유한다면 이들은 서로를 내집단(in-group)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없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 언어, 문화, 종교 등을 가진 이질적 집단(heterogeneous group)에 속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를 외집단(out-group)으로 인식함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내집단 간의 상호작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Allport, 1954; Pettigrew, 1998).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등을 수용해온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질적 집단과 관련된 논의를 주로 민족 다양성(ethnic diversity)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피부색, 종교 등으로 특정 집단을 정의하고 이들에게 낙인(stigma)을 찍는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상호 이질적인 집단 간의 접촉이 유발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갈등 가설(conflict hypothesis)과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이 양립하고 있는데 갈등 가설의 경우 이질적 집단 간의 접촉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편견(prejudice), 고정관념(stereotype) 등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접촉 가설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이질적 집단이 서로 접촉함으로써 상호 간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갈등 가설은 기존의 원주민 집단과 이주민 집단이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거나 기존 사회의 정체성, 사회 위계 및 구조, 그리고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원주민 집단이 이주민 집단을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함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배타적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고 특히 이주민 집단보다 원주민 집단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팽배할 경우 이러한 배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Blumer, 1958; Levine and Campbell, 1972).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시민적 참여가 인종 또는 민족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며(Alesina and La Ferrara, 2000; Costa and Kahn, 2003) 특히 외지인(소수민족)의 경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정착지의 원주민과

접촉하지 않고 그들 간의 내부결속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Vervoort et al., 2001; Vervoort, 2012).

상기한 갈등 가설과 유사한 맥락으로 위축 가설(constrict hypothesis)이 존재하는데 이는 민족 다양성이 이질적 집단 간의 상호작용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단체 활동을 꺼리게 만들고(hunker down)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시민적 참여 및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Putnam, 2007).

이와는 같은 민족 다양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한 가설들과는 달리 인종적, 민족적 특징이 상이한 집단이 서로 자주 접촉함으로써 기존의 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감소하거나(Allport, 1954; Pettigrew and Tropp, 2006) 서로에 대한 관용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Semyonov and Glikman, 2009; Laurence, 2011)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은 이질적인 집단이 상호 간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 간의 사회적 지위(group status)가 동등해지고 집단 간의 공통 목표(common goals)가 존재하여 상호 간의 협력(intergroup cooperation)이 이루어지며 집단 간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support of authorities)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Allport, 1954).

집단 간 접촉으로 편견이 줄어드는 과정은 첫째, 상호 간 접촉을 통하여 외집단의 특성을 체득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상대에 대한 입장 및 태도를 변화시키며 셋째, 외집단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넷째, 외집단을 재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Pettigrew, 1998).

2. 사회적 혼합

앞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주로 비숙련·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외국인이 주류 사회에 편입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 혹은 편견이 단순히 그들의 출신국가, 언어, 문화, 피부색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

한 것인지 혹은 그들의 계층 혹은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이 사회적 혹은 문화적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된다면 이러한 갈등의 문제는 국적 혹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 혹은 사회 계층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혼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 또는 갈등 문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존 사회적 혼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거단지 내, 혹은 지역 내 혼합으로 인한 이질적 계층의 접촉으로 인한 갈등 혹은 계층이동가능성(social mobility)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특정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 자체의 물리적 품질에 대한 선호, 주택 인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근린환경에 대한 선호, 이웃에 대한 선호,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 그리고 장래 자산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투자 등의 수요 요인과 주택의 신규 공급, 재개발, 멸실 등의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수요 요인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는 각각의 선호와 예산제약을 바탕으로 주택을 선택하며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주택에 대한 지불용의액 경쟁이 시장에 투영되어 주택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주택의 물리적 품질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주택가격은 지리적 위치, 인근의 환경, 이웃 등 주로 근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계층은 공간적으로 격리된 그것에 비하여 상당히 유사해진다.

이러한 계층 간의 선호와 예산 제약 차이로 인하여 서로 유사한 거주 계층이 공간적으로 군집(concentration)하게 되며 그 결과 서로 상이한 계층

간의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현상(residential segregation)이 발생하는데 이는 곧 계층 혹은 소득의 공간적 분리(class or income segregation)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상위 계층의 경우 하위 계층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사회적 성장에 대한 역할모델(role model)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계층별 거주지 분리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물리적 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하위 계층의 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적 연계(bridge) 및 접근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이로 인하여 하위 계층은 계층 이동(social mobility)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거주지 분리 및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경험한 서구 사회는 하위 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 계층 간 갈등 완화, 고용 및 거주 안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사회적 혼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Sarkissian, 1976) 국내에서도 사회적 혼합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계층 간 거주지의 공간적 분리를 완화하는 사회적 혼합 정책은 주로 도심 내 임대주택 단지의 건설, 주거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주거비용에 대한 보조 등을 통하여 주택 유형(housing type) 및 점유 유형(tenure type)을 다양화하고 하위 계층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예산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하위 계층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실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 거주지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계층 간의 공간적 혼합이 계층 이동 가능성을 향상시키거나 계층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완화하여 사회적 조화(harmony)를 이룩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의 이면에는 상호 이질적인 계층 간의 비자발적 접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의 증가 및 계층 간의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제 3 절 사회적 신뢰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계(connection)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와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신뢰(trust), 규범(norm), 호혜성(reciprocity)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자본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 따라 축적되기도 소멸되기도 하는 관계재의 일종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 간의 공통적인 규범(norm), 의무(obligation), 기대(expectation), 신뢰(trustworthiness), 정보 채널(information channel) 등을 전제한 접촉,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사회적 자본이 보다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닫힌 사회적 네트워크(closure of network)와 자발적 참여(spontaneous social association)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Coleman, 1988).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개인 및 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가족관계 등과 더불어 커뮤니티나 국가의 역사적 관습, 제도, 성향에 따라 사회적 자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Coleman, 1988; Fukuyama, 1995; Putnam, 1995; 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이 적절히 형성될 경우 사회적으로 다양한 편익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감소하거나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호 간의 감시를 통하여 범죄를 억제하거나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의 확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Fukuyama, 1995; Putnam, 1995; Ostrom, 1999; Putnam, 2000).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사회적 자본의 감소현상에 대하여 연구한 Putnam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제약하는 고용불안정, 공간적으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교외화 현상과 장거리 통근, 사람들의 대면접촉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TV와 같은 매스미디어, 그리고 세대의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자본이 저해된다고 주장하였다⁴⁾(Putnam, 1995; Putnam, 2000).

2.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의 하부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신뢰는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의 국가 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번영과의 관계를 탐구한 Fukuyama(1995)는 사회적 신뢰가 그 사회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Fukuyama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이 낮을 경우 사람들은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문 경영인과 협업하는 것에 대해 강한 문화적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족벌주의(nepotism)나 가족 커뮤니티로의 고착화(inbred stagnation)가 만연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가족 중심적, 폐쇄적 기업구조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민족적 규율(ethnic rules), 규범(norms)과 같은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신뢰가 존재할 경우 그 사회는 소규모·폐쇄적 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부터 벗어나 전문가에 의해 경영되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측면에서 유리한 대기업을 필두로 경제적 번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4)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민적 참여 성향이 낮으며 미국 사회의 인구구조가 베이비붐 이후 세대로 점차 교체됨에 따라 시민적 참여 및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Putnam, 2000).

5) Fukuyama(1995)는 그의 연구에서 대기업은 자본집약적(capital-intensive), 복잡한 제조공정(complex manufacturing processes), 대규모 분배 네트워크(extensive distribution network) 구조에 적합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기업은 유

이에 더하여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유한 사회는 협상, 법규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 혹은 기업 간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제 4 절 사회적 신뢰 영향 요인

사회적 신뢰는 관계재의 일종으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접촉, 네트워크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개인 및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구성원 수준의 연구와 더불어 도시계획, 지리학 분야에서는 이질적인 집단⁶⁾ 간의 공간적 인접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1. 외국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 사회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보다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입된 사람들로 인하여 형성되는 민족 다양성(ethnic diversity)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서구 사회와는 달리 단일 민족성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민족 다양성과 외국인과의 접촉이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민족 다양성이 사회적 자본 혹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해보았다.

민족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다양성이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 그리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존재한다⁷⁾.

연성(flexibility), 관료주의의 부재(lack of bureaucracy), 의사결정 속도(speed of decision making) 등이 우월하다는 점에서 각각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 대기업의 높은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보다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6) 이질적 집단이라 함은 인종, 민족, 종교, 문화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상이한 집단을 말한다.

민족 다양성이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민족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다양성보다 언어적 분절(linguistic fractionalisation)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주장하거나(Leigh, 2006) 경제적 박탈(economic deprivation)에 의하여 신뢰가 더 손상된다고 주장(Letki, 2008)하거나 거주지 분리의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Uslander, 2011)이 존재한다.

민족 다양성이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다양한 인종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경우 신뢰수준이 다시 높아질 수 있으며(Stolle et al., 2008) 민족 다양성을 오랜 기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연령 코호트에 비하여 어릴 적부터 민족 다양성을 경험한 저연령 코호트는 타 집단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Ford, 2008; Stolle and Harell, 2013).

다양성과 신뢰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연구에서는 다양성과 더불어 범죄 위협, 경제적 박탈, 거주지 분리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을 경우 다양성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Costa and Kahn, 2003; Sturgis et al., 2011; Rothwell, 2012).

정리해보자면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성이 신뢰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인정하되 거주지 분리나 경제적 박탈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다양성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근린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인종 혼합 및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인식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민족 다양성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거나(Marschall and Stolle, 2004), 지역 수준의 경제적 박탈을 통제하였을 때 다양성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Sturgis et al., 2014)가 이를 대변한다. 또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다민족에

7)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별개로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다양성은 부정적 영향을 가지거나(Cheong et al., 2007)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기도 한다(Ford, 2008; Bécares et al., 2011; Sturgis et al., 2014).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Laurence, 2011)도 있다.

이와 같은 민족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반하여 민족별 거주지 분리는 일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Uslander, 2011; Rothwell, 2012; Sturgis et al., 2014) 경제적 박탈 또한 신뢰에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Letki, 2008; Gesthuizen et al., 2009; Sturgis et al., 2011).

민족 다양성과 민족별 거주지 분리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민족별 거주지 분리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만 민족 다양성의 경우 사회적 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2. 원주민 이탈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인구이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leinhans et al., 2007; 김승남 외, 2011) 이는 지역 사회 네트워크의 교란 및 손실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원주민들은 그들과 공존하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보이며 후자의 경우 기존 사회 네트워크의 손실로 말미암아 잠재적인 사회적 자본의 손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3. 경제적 계층 혼합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혼합은 하위 계층의 공간적 분리 및 이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혼합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하위 계층의 공간적 분리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하위 계층의 공간적 분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하위 계층의 공간적 분리 현상(Reardon and O'Sullivan, 2004; 박윤환, 2011) 또는 하위 계층 거주지에 살게 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

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하위 계층의 공간적 분리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영향을 검토함에 있으므로 공간적 분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하위 계층의 공간적 분리는 주로 하위 계층에 한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낙후된 지역(deprived area)이나 빈민가(ghetto)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지역의 만연한 일탈적 규범, 롤모델의 부재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Atkinson and Kintrea, 2001) 범죄의 희생양이 되거나 낮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를 향유하게 되며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 낙인(stigmatization)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Musterd and De Winter, 1998).

하위 계층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근린의 높은 경제적 박탈(economic deprivation) 수준과 미고용상태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도록 하며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거나 일을 얻지 못할 확률이 높으며 한 번 빈곤에서 벗어나더라도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Buck, 2001)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리해보자면 하위 계층의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될 경우 하위 계층이 밀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과 계층 간 연계가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혼합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 유형(housing type)이나 소유 유형(tenure type)을 다양화·혼합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각 계층의 다양한 선호나 예산 제약을 폭넓게 수용하고 이를 통하여 주택 선택권(housing choice) 및 거주 계층을 다양화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사회적 혼합은 특히 사람들의 생활양식 혹은 생애 기회(life chance)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혹은 마주하고 있는 이웃 집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지역적 효과(area effect) 혹은 근린 효과(neighborhood effect)에 근간을 두고 있다(Musterd and Andersson,

2005).

사회적 혼합은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적 조화(harmony)를 꾀하거나 삶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 계층 간 혼합을 통한 문화의 융성, 다양한 주거양식의 수용을 통한 심미적 다양성(aesthetic diversity) 및 수준 향상 등을 꾀하거나(Sarkissian, 1976) 주거의 균일성, 가난의 집중(concentration of poverty)이 촉발할 수 있는 빈민가 형성(urban ghettization)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Ostendorf et al., 2001; Musterd and Andersson, 2005).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혼합은 상이한 사회적 집단 간의 분함, 갈등, 무질서, 접촉에 대한 거부감 등을 유발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자본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Atkinson and Kintrea, 2001).

이와 같은 사회적 혼합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검토한 연구와 더불어 사회적 혼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증가와 사회적 네트워크 약화 간의 연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린에 대한 평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며(Musterd, 2008) 주택 재고(housing stock)의 혼합을 통한 저소득층 비율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한다(Ostendorf et al., 2001).

사회적 혼합의 지역적 영향 외에도 이를 수용하는 개인의 태도에 대한 논의로 중위 소득 가구는 타 계층에 비하여 비교적 사회적 혼합에 관대하며 이와는 반대로 자가 소유자(owner-occupiers)는 사회적 혼합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특성을 계층이 혼합된 지역과 비교적 동질적인 계층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혼합 지역(mixed area)에 살면서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strong social network)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혼합을 선호하며 동질적 지역(homogeneous area)에 거주하면서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혼합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Musterd, 2008).

지역 단위의 사회적 혼합과 더불어 주거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의 사회

적 혼합으로 인한 부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 저소득가구의 비중 등을 적절히 제어하여야 공동체 갈등, 안전과 같은 1차적 효과와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적 유발효과(지역 이미지, 주택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김준형 외, 2005).

사회적 혼합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자면 계층별 거주지 분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혼합을 장려하였으나 계층 혼합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혼합 지역과 동질적 지역에 거주하는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즉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의 사회적 혼합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는 것이며(Musterd, 2008) 이는 사람들이 각자 거주하는 지역에 의하여 사회적 혼합을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성향이 차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환경결정론적(environmental determinism)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기제가 접촉,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사회 혹은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개별 구성원의 특성뿐만 아니라 집단 혹은 계층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 수준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속한 집단 간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혼합의 경우에도 직업, 소득, 생활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은 집단 간의 접촉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상기한 집단 간 접촉과 관련된 이론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혼합으로 인한 이질적 집단 간의 접촉으로 사회적 자본의 감소,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의 저해가 발생할 수도, 서로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 및 통합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수행된 사회적 혼합과 사회적 자본 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대체로 그 관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인종 다양성(race diversity), 민족 다양성(ethnic diversity)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혼합 요소에 의해 감소하며(Alesina and La Ferrara, 2000) 자발적·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의미하는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 또한 이질적인 커뮤니티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Costa and Kahn, 2003).

또한 사회적으로 혼합된 지역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균일한 지역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사회화 과정 또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기에는 서로 간의 공통점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Murie and Musterd, 2004).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을 한 단지 내에 혼합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천현숙, 2004) 실제 거주민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고 분리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연구결과(박관민 외, 2009)는 단지 내 사회적 혼합의 부정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혼합과 사회적 통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지역 단위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과 개인의 낮은 경제적 지위는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사회적 통합은 실제 불평등 수준뿐만 아니라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수용(인식) 정도에 따라서도 나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Vergolini, 2011).

반면에 주택 유형, 평형, 소유관계 혼합 등을 통해 시행되는 사회적 혼합 정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김승남·김재홍, 2013)와 근린 규모에서의 소득 혼합도가 구성원들의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양승호 외, 2014)는 사회적 혼합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연구는 각각 사회적 자본의 종류와 공간적 범위에 따라 그 영향력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적 혼합의 필요성에 대한 확정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상기한 사회적 혼합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신뢰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Leigh, 2006).

사회적 혼합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두 개념 간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근린환경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한 외국인과의 접촉 혹은 사회적 혼합이 갖는 특징은 직장 혹은 거주지의 입지와 같은 도시 내부의 구조에 의하여 조정·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렴하고 노후화된 주택과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내국인들은 공장과 쾌적하지 않은 거주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의식하여 이주하게 되며 그 빈자리를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게 됨으로써 남아있는 내국인들의 외국인 접촉 빈도가 증가하거나 주거비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높은 내국인들의 유출로 인하여 소득계층의 하향평준화로 지역 내 주택가격의 다양성 혹은 불평등 정도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주환경은 사회 구성원들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고 실제 거주민들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으로써 사회적 신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근린환경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에서는 거주지 선택 요인으로서의 근린환경이라기 보다는 육체적·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써 근린환경이 각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자본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eeman, 2001; Kleinhans et al., 2007; Dempey, 2008; 박선희·박병현, 2012; 김승남·김

재홍, 2013; 유치선 · 이수기, 2015; 조혜민 · 이수기, 2016).

인구밀도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보이는데 교외화 현상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본 Putnam(1995)은 교외화로 인하여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들어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하였고, Freeman(2001)의 연구에서 인구밀도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연구들과는 달리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Brueckner and Largey, 2008; Dempsey, 2008; Bramley and Power, 2009).

이와는 별개로 인구이동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변동될 경우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교란되어 사회적 자본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능하다(Kleinhans et al., 2007; 김승남 외, 2011).

도시의 가로체계와 관련하여 쿨데삭(Cul-de-sac)과 굽은 가로체계(conventional), 전통적 격자형 가로체계(traditional), 격자와 쿨데삭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가로체계(hybrid)와 같은 가로 구성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신뢰 차이를 분석한 Wood et al.(2012)는 사회적 자본은 가로체계가 쿨데삭과 굽은 가로체계(conventional)로 구성되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복합용도(mixed-use)와 관련하여 주거 용도로만 구성된 지역보다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상점, 선술집, 교회 등이 존재하는 복합용도 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reeman, 2001; Leyden, 2003; Dempsey, 2008) 개인교통수단인 차량을 이용하여 통근할 경우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들어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utnam, 1995; Freeman, 2001).

상기한 근린환경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 더하여 차량 위주의 획일적 가로체계, 용도분리, 그리고 불도저식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도시생태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꿰뚫어본 Jacobs(1961)는 쇠퇴한 도시에 활기

를 불어넣기 위하여 보도, 공원 등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들이 보행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블록 체계와 용도 다양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Jacobs(1961)는 이러한 도시계획적 요소의 적용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증가하면 그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감시(natural surveillance)를 통한 치안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은 상호 간의 신뢰와 암묵적 규범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Jacobs의 주장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근린환경과 공동체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제 1 절 연구문제

1. 외국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오랜 기간 단일 민족성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에 들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로 인하여 빠르게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의 거주지 인접과 이로 인한 접촉 빈도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의 결과로 부정적 사회현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내국인들의 사회적 자본, 특히 경제적 자본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의 변동을 알아보고자 하며 도시계획·정책의 측면에서 이러한 외국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손상에 대응하는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다만 외국에서 유입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출신국가별, 체류자격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분류하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또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이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지역 단위의 사회계층 혼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거주지 선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린 환경적 요소⁸⁾를 투입하였다.

8) 이러한 근린환경적 요소는 외국인의 유입에 영향을 주고,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성성(endogeneity)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유출에 관한 논의

제한된 주택재고 상황 하에서 특정 인구 집단의 유입은 다른 인구 집단의 유출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논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유출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다수의 외국인 인구가 유입될 경우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 내국인의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내국인이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의 경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기존 원주민들의 이탈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Kleinhans et al., 2007; 김승남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인구와 내국인 인구의 지역별 트렌트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외국인의 유입이 내국인의 유출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고 신뢰에 대한 내국인 유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분석 데이터 정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집계·이용하였다. 우선 서울시민의 사회적 신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서베이(2015)를 이용하였으며 행정동별 분류별 외국인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통계에서 제공하는 등록외국인 자료를 집계하였다.

추가적으로 사회계층 혼합의 대리변수로 지역 내 주택가격의 불평등, 행정동 평균 주택가격을 이용하였는데 해당 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공간정보를 이용하였으며 거주환경의 쾌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동별 주택의 사용연수를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집계구 단위로 발표되는 인구주택총조사(2015) 자료를 집계한 결과이다.

1. 서울서베이⁹⁾

서울특별시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정책 입안 및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및 수집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에서는 2003년부터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이하 서울서베이) 사업을 기획·실시해오고 있다¹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서울서베이(2015)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2만 가구, 4만 6천여 명에 대한 다양한 객관적, 주관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이용되는 개인 단위의 사회적 신뢰 수준을 대변하는 항목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변수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유형, 점유유형,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종교, 금전적 도움 수혜여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삶의 질,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수, 출신지역, 거주기간, 서울시민 자부심,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 보행환경 만족도(거주지, 시내, 야간)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범죄나 폭력, 길거리의 쓰레기방치, 소음 등과 같은 생활안

9) 서울서베이에서는 각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자치구 단위로 설정·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동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및 지역정보 노출, 샘플 수, 표본의 대표성 등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뢰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지나치게 큰 지역 단위(자치구)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거주지를 행정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였으며 추가적 데이터 정제과정을 거친 이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만 행정동 단위 정보의 노출은 공식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구 단위의 서울서베이 통계량만을 기재한다.

10) 관련 내용은 서울통계 내 서울서베이 홈페이지 참고(<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2&cot=007>)

전도 관련 설문지 경우 가구주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데 가구주의 생활안전도 인식이 가구원의 생활안전도 인식과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동일 가구에 속한 가구원 모두에게 가구주의 생활안전도 인식 수준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 단위의 서울서베이를 이용함에 있어 샘플 수, 표본의 대표성 이슈를 감안하여 최소 30개 이상의 데이터 수를 갖는 행정동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분석 대상 자료는 415개 행정동에 거주하는 46,547명의 응답자로 한정된다.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공간정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외국인과의 접촉 혹은 공존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민족, 언어, 종교, 문화,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만약 사회적 신뢰가 외국인의 접촉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손상된다면 외국인보다는 지역 단위의 사회적 혼합 정책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동 기준 평균 주택가격과 주택가격을 이용한 지니계수로 표현되는 주택가격불평등 변수와 저렴주택 비율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해당 변수의 경우 행정동별 개별 주택의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공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 및 위치 정보¹¹⁾ (2016년 1월 1일 기준)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기준 총 268만 5천여 건의 주택가격정보를 추출·이용하였다.

3. 인구주택총조사

11) 주택위치정보(좌표 정보)는 총 47만 5천여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동별 전체 주택 대비 아파트 비율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5년 기준 집계구별 주택유형별 주택 데이터를 집계·가공하여 변수로 이용하였다.

제 3 절 측정 개념에 관한 논의

1. 사회적 신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로 인하여 거래비용의 감소, 공공재의 효율적 관리, 범죄의 억제, 민주주의의 발전 등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통계 모형에서의 변수로서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 호혜성, 지역 사회 통제·감시 등의 개념을 측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비교적 다양한 관점(가족, 이웃, 낯선 사람,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측정하고 있는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사회적 신뢰
문24.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과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5-----	4-----	3-----	2-----	1-----

1) 가족	
2) 이웃	
3) 낯선 사람	
4) 공공 기관	

[그림 3-1] 서울서베이 2015 설문지 - 사회적 신뢰

사회경제적 거래활동, 경제적 편익과 관련된 신뢰 수준을 대리하는 변수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강도 및 지역 사회의 통제 및 감시 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이웃에 대한 신뢰’를

선정하였다.

[표 3-1] 행정동별 평균 신뢰 -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자치구	행정동	평균 신뢰 - 이웃
송파구	방이1동	3.086957
송파구	오금동	2.971223
성북구	정릉4동	2.950495
송파구	오륜동	2.942857
강동구	상일동	2.927835
은평구	갈현1동	2.908333
양천구	신정4동	2.886139
마포구	망원2동	2.873239
은평구	갈현2동	2.846715
마포구	망원1동	2.770115
...
강동구	고덕1동	1.138889
성동구	왕십리2동	1.128205
영등포구	신길6동	1.128205
구로구	오류1동	1.124031
강남구	역삼2동	1.099099
도봉구	창4동	1.097744
영등포구	신길7동	1.086207
강동구	고덕2동	1.055556
마포구	상암동	1.03125
강서구	가양2동	1.027778

[표 3-2] 행정동별 평균 신뢰 - 이웃에 대한 신뢰

자치구	행정동	평균 신뢰 - 이웃
중랑구	면목3.8동	3.5793
중구	동화동	3.5441
종로구	창신1동	3.5435
광진구	구의2동	3.5323
광진구	구의3동	3.5250
송파구	오륜동	3.5143
종로구	창신2동	3.4868
송파구	문정1동	3.4800
중구	약수동	3.4745
강서구	화곡8동	3.4730
...
노원구	월계2동	2.9624
영등포구	신길5동	2.9588
종로구	사직동	2.9559
영등포구	대림3동	2.9537
구로구	고척1동	2.9328
성동구	왕십리2동	2.8590
영등포구	신길7동	2.8448
영등포구	신길3동	2.8308
영등포구	신길6동	2.7436
영등포구	신길4동	2.6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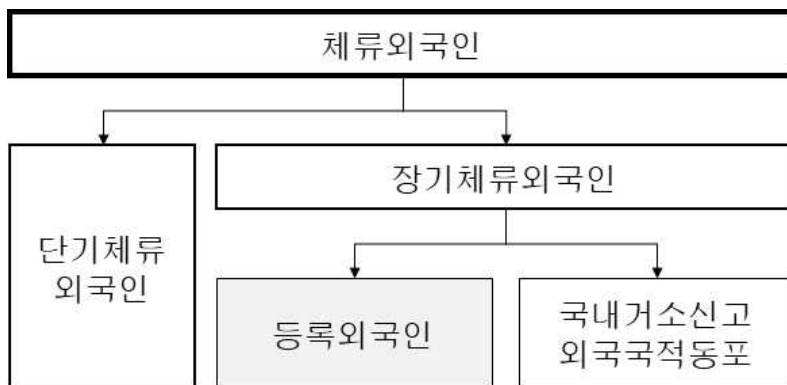
2.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의 증가와 이로 인한 주류 사회와의 접촉 가능성이 내국인의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에 앞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보다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법무부의 외국인에 대한 분류와 구득 가능한 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체류외국인의 분류¹²⁾

체류외국인은 크게 체류기간 90일을 기준으로 단기체류외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다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적용을 받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될 수 있다.

귀화 및 국적회복자, 불법체류자, 난민 등은 공식 외국인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3-2] 체류외국인의 분류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체류외국인을 구성하는 각 분류별(단기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의 분포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볼 때 전체 외국인 대비 등록외국인은 약 60.18%, 단기체류외국인은 약 22.72%,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약 17.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류별 외국인 구성은 현재 시도 단위로 제공되지 않아 그 수를 정확히

12) 체류외국인의 분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에 기재되어 있다.

측정할 수 없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약 27만 여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3] 국내 체류 중인 분류별 외국인

연도	단기체류	장기체류외국인		합계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2004	259,464	468,875	22,534	750,873
2005	236,958	485,144	25,365	747,467
2006	249,542	631,219	29,388	910,149
2007	266,011	765,746	34,516	1,066,273
2008	263,402	854,007	41,457	1,158,866
2009	247,590	870,636	50,251	1,168,477
2010	258,673	918,917	83,825	1,261,415
2011	277,596	982,461	135,020	1,395,077
2012	324,504	932,983	187,616	1,445,103
2013	356,842	985,923	233,269	1,576,034
2014	419,673	1,091,531	286,414	1,797,618
2015	431,646	1,143,087	324,786	1,899,519

2) 장기체류외국인 관련 법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이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6호)를 필해야하며 해당 법률 조항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1조(외국인등록)

- ① 외국인인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 [전문개정 2010.5.14.]

[표 3-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국내거소신고)

-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3) 분석 대상 외국인의 설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내 행정동별·체류자격별·국적별 외국인의 거주비율에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현재 등록외국인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 외국인은 등록외국인으로 한정하기로 하며 거소신고동포, 단기체류자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탐색적 자료 분석

1. 서울서베이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거주 외국인의 특성

1) 분석 개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공간적 분포는 외국인의 거주지 선호 요인과 서울특별시의 도시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언어, 문화, 종교 등을 갖는 사람들과 군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유사한 외국인 집단끼리 결집하는 등의 내국인과는 차별적인 거주지 선호 성향을 보이게 된다. 또한 이들은 거주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지불용의액과 금융서비스 제약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저렴한 거주 지역 및 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성향은 2015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서울서베이¹³⁾ 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세부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출신국가별 비중

우선 응답자의 출신국가에 대하여 알아보면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권 출신 응답자의 비율이 72%로 가장 많으며 영미권, 유럽권 및 기타 국가 출신의 비율이 각각 16%, 6%, 6% 순으로 나타났다.

13) 추후에 이용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서베이와의 표기상의 차별성을 위하여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로 기재하기로 한다.

[표 3-6] 국적별 응답자 수 및 비율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국적	응답자 수	구성 비율
중국	950	38.00%
일본	200	8.00%
대만	200	8.00%
베트남	150	6.00%
기타 아시아권(중국, 일본 제외)	300	12.00%
미국	250	10.00%
영미권	150	6.00%
유럽권	150	6.00%
기타	150	6.00%
합계	2,500	100.00%

3) 체류자격별 비중

체류자격별 비중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은 ‘기타 90일 이상 비자’이며 이에 이어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직 취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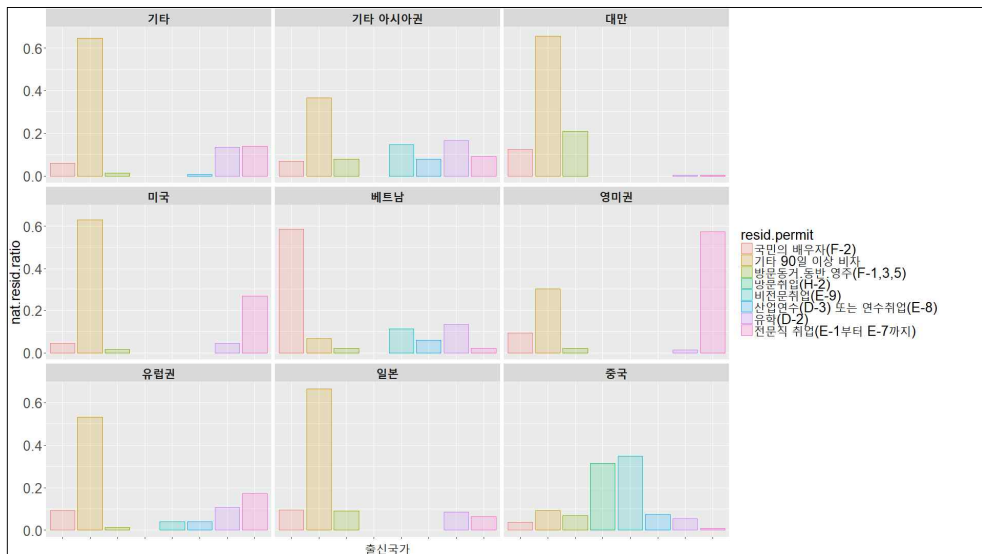
[표 3-7] 체류자격별 응답자 수 및 비율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체류자격	응답자 수	구성 비율
기타 90일 이상 비자	851	34.04%
비전문취업(E-9)	398	15.92%
방문취업(H-2)	299	11.96%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	252	10.08%
국민의 배우자(F-2)	237	9.48%
유학(D-2)	188	7.52%
방문동거.동반.영주(F-1,3,5)	164	6.56%
산업연수(D-3) 또는 연수취업(E-8)	111	4.44%
합계	2,500	100.00%

‘기타 90일 이상 비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해당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의 국적 분포는 미국, 일본, 대만, 기타 아시아권,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각 국가별 전체 응답자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 일본, 대만, 기타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약 60% 이상이 ‘기타 90일 이상 비자’를 이용하여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국적별 ‘기타 90일 이상 비자’ 비중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출신국가	기타 90일 이상 비자 응답자	해당국가 출신 전체 응답자	기타 90일 이상 비자 비중
중국	88	950	9.26%
일본	133	200	66.50%
대만	131	200	65.50%
베트남	10	150	6.67%
기타 아시아권	110	300	36.67%
미국	157	250	62.80%
영미권	45	150	30.00%
유럽권	80	150	53.33%
기타	97	150	6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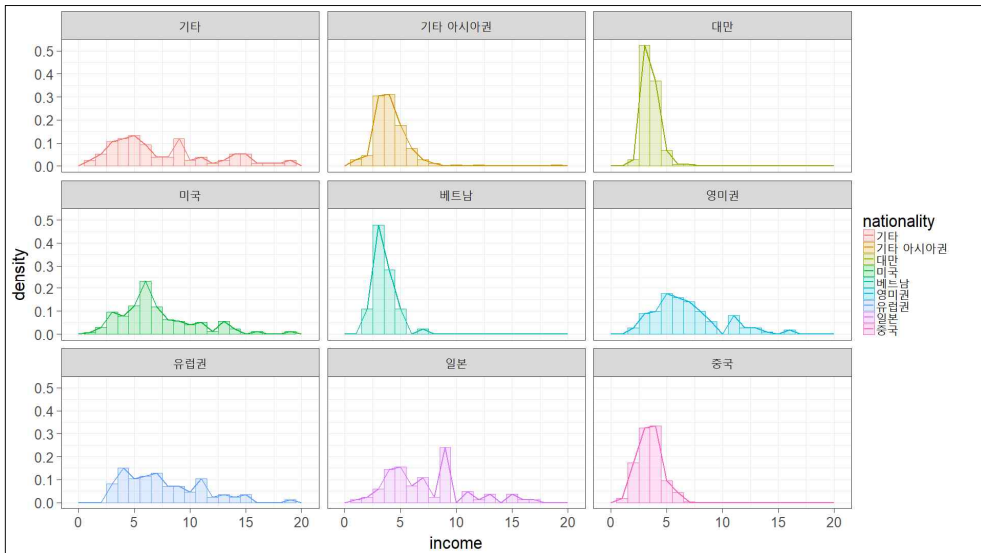
[그림 3-3] 국적별 · 체류자격별 분포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4) 출신국가별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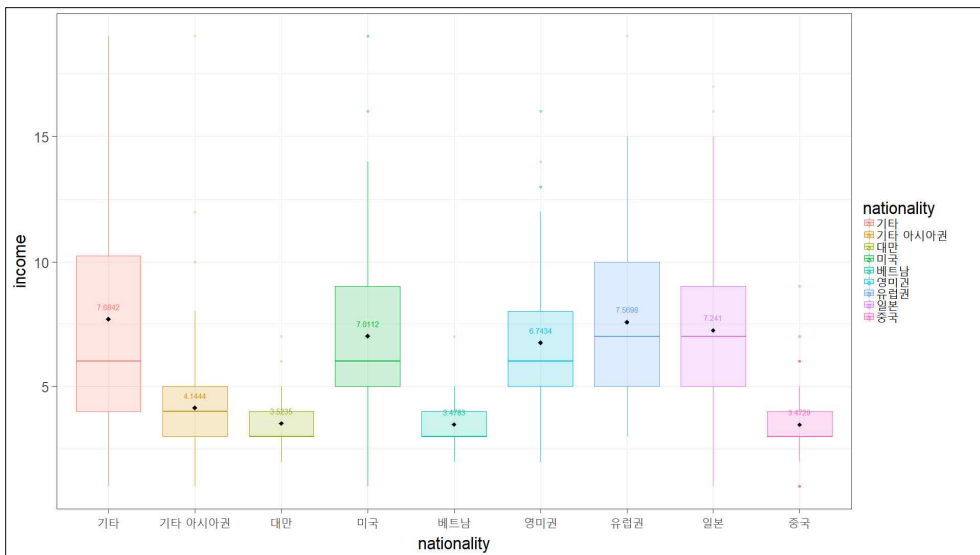
앞서 외국인들은 각각의 출신국가 혹은 체류 자격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닐 것이라 추측한 바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외국인들의 국적별 소득수준을 살펴보았다.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상에서 외국인들의 소득수준(월평균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50만 원 미만(1 수준)’부터 ‘900만 원 이상(19 수준)’까지 50만 원 단위로 나뉘어진 총 19개 구간값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국가별 소득수준의 히스토그램 및 박스 플롯을 참고할 때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은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비율 및 평균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포를 참고할 때 각 출신국가별 평균 소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각 집단별 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ukey's HSD(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베트남, 대만 등에서 유입된 외국인들의 평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미권, 유럽권, 기타 국가 출신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소득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국적별 소득분포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그림 3-5] 국적별 소득분포(Boxplot)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표 3-9] 출신국가별 소득차이 (Tukey's HSD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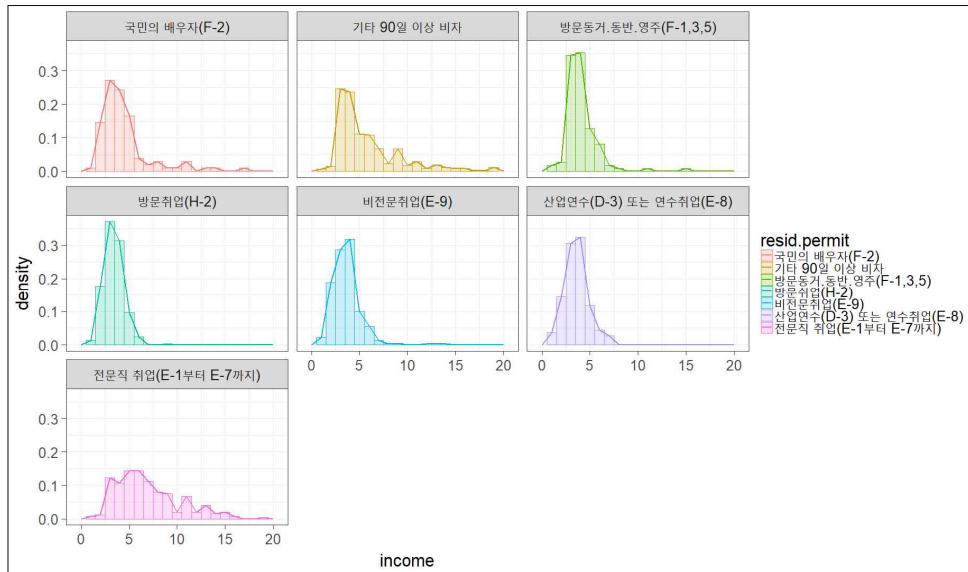
출신국가 차이	소득차이	유의확률
중국-일본	-3.7681	0.0000
중국-유럽권	-4.0969	0.0000
중국-영미권	-3.2705	0.0000
중국-베트남	-0.0054	1.0000
중국-미국	-3.5383	0.0000
중국-대만	-0.0506	1.0000
중국-기타 아시아권	-0.6715	0.0077
중국-기타	-4.2113	0.0000
일본-유럽권	-0.3288	0.9891
일본-영미권	0.4976	0.8314
일본-베트남	3.7627	0.0000
일본-미국	0.2297	0.9974
일본-대만	3.7175	0.0000
일본-기타 아시아권	3.0965	0.0000
일본-기타	-0.4432	0.9432
유럽권-영미권	0.8264	0.1869
유럽권-베트남	4.0915	0.0000
유럽권-미국	0.5585	0.6031
유럽권-대만	4.0463	0.0000
유럽권-기타 아시아권	3.4253	0.0000
유럽권-기타	-0.1144	1.0000
영미권-베트남	3.2651	0.0000
영미권-미국	-0.2679	0.9857
영미권-대만	3.2199	0.0000
영미권-기타 아시아권	2.5989	0.0000
영미권-기타	-0.9408	0.1004
베트남-미국	-3.5330	0.0000
베트남-대만	-0.0452	1.0000
베트남-기타 아시아권	-0.6662	0.6716
베트남-기타	-4.2059	0.0000
미국-대만	3.4877	0.0000
미국-기타 아시아권	2.8668	0.0000
미국-기타	-0.6730	0.3983
대만-기타 아시아권	-0.6210	0.2206
대만-기타	-4.1607	0.0000
기타 아시아권-기타	-3.5398	0.0000

5) 체류자격별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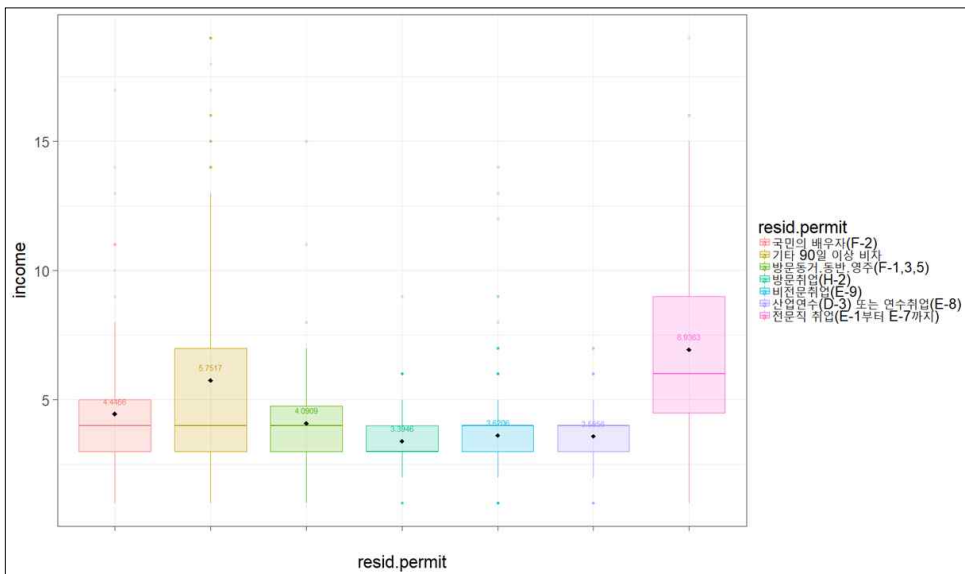
하지만 외국인들은 개인별로 상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법무부에서는 총 30개의 체류자격¹⁴⁾을 부여하여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에서는 이러한 체류자격을 ‘방문동거, 동반, 영주(F-1, 3, 5)’, ‘국민의 배우자(F-2)’,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산업연수(D-3) 또는 연수취업(E-8)’, ‘유학(D-2)’, ‘기타 90일 이상 비자’와 같은 8가지로 압축하여 분류하고 있다.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소득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방문동거, 동반, 영주(F-1, 3, 5)’,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산업연수(D-3) 또는 연수취업(E-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교적 낮은 소득수준을 갖는데 반하여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 ‘국민의 배우자(F-2)’, ‘기타 90일 이상 비자’로 분류된 외국인들은 고소득 구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4)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외교(A-1)’, ‘공무(A-2)’, ‘문화예술(D-1)’, ‘구직(D-10)’,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선원취업(E-10)’, ‘회화(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



[그림 3-6] 체류자격별 소득분포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그림 3-7] 체류자격별 소득분포(Boxplot)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국적과 유사하게 집단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Tukey's HSD

Test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직 취업 집단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하여 높은 소득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취업 집단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체류자격별 소득차이 (Tukey's HSD Test)

체류자격 차이	소득차이	유의확률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산업연수(D-3) 또는 연수취업(E-8)	3.3507	0.0000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비전문취업(E-9)	3.3157	0.0000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방문취업(H-2)	3.5416	0.0000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방문동거.동반.영주(F-1,3,5)	2.8453	0.0000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기타 90일 이상 비자	1.1846	0.0000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국민의 배우자(F-2)	2.4897	0.0000
산업연수(D-3) 또는 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0.0350	1.0000
산업연수(D-3) 또는 연수취업(E-8)-방문취업(H-2)	0.1909	0.9928
산업연수(D-3) 또는 연수취업(E-8)-방문동거.동반.영주(F-1,3,5)	-0.5053	0.7309
산업연수(D-3) 또는 연수취업(E-8)-기타 90일 이상 비자	-2.1661	0.0000
산업연수(D-3) 또는 연수취업(E-8)-국민의 배우자(F-2)	-0.8610	0.1418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0.2260	0.8954
비전문취업(E-9)-방문동거.동반.영주(F-1,3,5)	-0.4703	0.5683
비전문취업(E-9)-기타 90일 이상 비자	-2.1311	0.0000
비전문취업(E-9)-국민의 배우자(F-2)	-0.8260	0.0398
방문취업(H-2)-방문동거.동반.영주(F-1,3,5)	-0.6963	0.1486
방문취업(H-2)-기타 90일 이상 비자	-2.3570	0.0000
방문취업(H-2)-국민의 배우자(F-2)	-1.0520	0.0037
방문동거.동반.영주(F-1,3,5)-기타 90일 이상 비자	-1.6608	0.0000
방문동거.동반.영주(F-1,3,5)-국민의 배우자(F-2)	-0.3557	0.9416
기타 90일 이상 비자-국민의 배우자(F-2)	1.3051	0.0000

국적별·체류자격별 구성 비율자료를 살펴보면 영미권, 유럽권, 일본, 대만 등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경우 그 체류자격이 ‘전문직 취업’이나 ‘기타 90일 이상 비자’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비전문취업’과 ‘방문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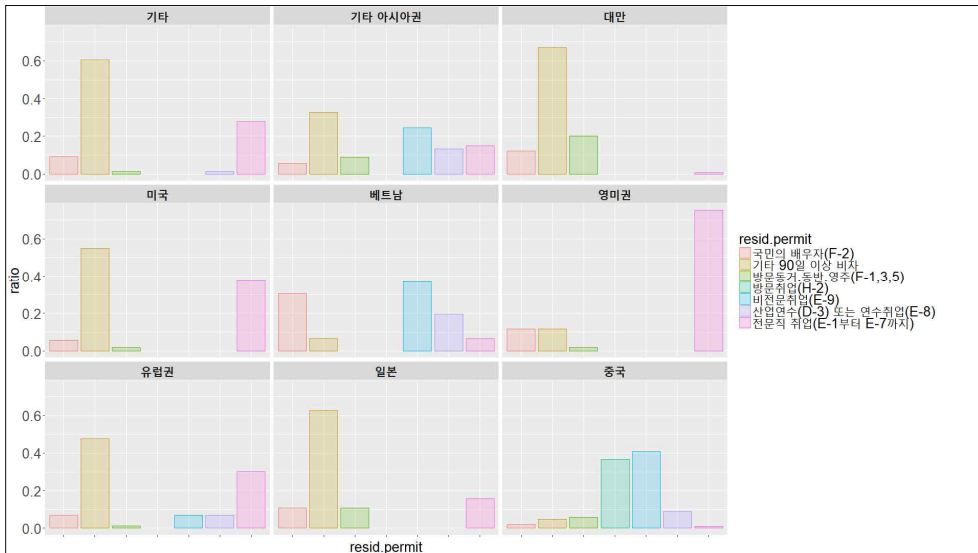
업'의 비중이 각각 34.84%, 31.47%로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의 경우 '국민의 배우자'의 비중이 58.67%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1] 국적별·체류자격별 구성 비율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국적	국민의 배우자	기타 90일 이상 비자	방문 동거·동반·영주	방문 취업	비전문 취업	산업 연수·연수 취업	유학	전문직 취업
중국	3.79%	9.26%	6.95%	31.47%	34.84%	7.47%	5.37%	0.84%
일본	9.50%	66.50%	9.00%	0.00%	0.00%	0.00%	8.50%	6.50%
대만	12.50%	65.50%	21.00%	0.00%	0.00%	0.00%	0.50%	0.50%
베트남	58.67%	6.67%	2.00%	0.00%	11.33%	6.00%	13.33%	2.00%
기타 아시아권	7.00%	36.67%	8.00%	0.00%	14.67%	8.00%	16.67%	9.00%
미국	4.40%	62.80%	1.60%	0.00%	0.00%	0.00%	4.40%	26.80%
영미권	9.33%	30.00%	2.00%	0.00%	0.00%	0.00%	1.33%	57.33%
유럽권	9.33%	53.33%	1.33%	0.00%	4.00%	4.00%	10.67%	17.33%
기타	6.00%	64.67%	1.33%	0.00%	0.00%	0.67%	13.33%	14.00%

상기한 소득분포 및 국적별·체류자격별 구성비를 살펴볼 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적과 체류자격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적별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영미권, 유럽권, 기타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은 '전문직 취업(E-1~E-7)'과 '기타 90일 이상 비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권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3-8]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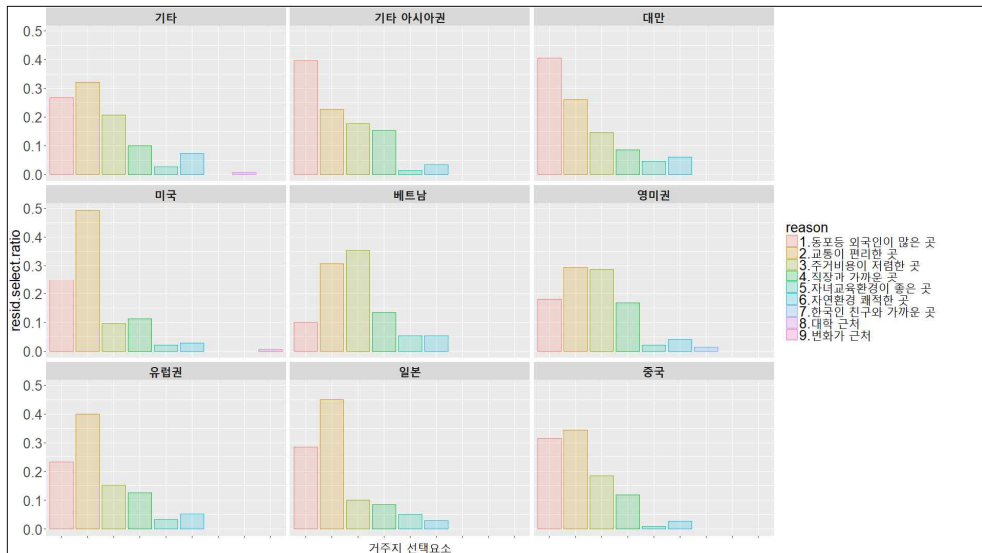
6) 출신국가별 거주지 선택요인

내국인들은 그들의 예산제약, 직장으로부터의 거리, 근린환경, 교육환경,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 등의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염두하여 거주지를 선택하게 되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이주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들과 출신이 유사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등 내국인과는 차별적인 거주지 선택요인을 가지게 된다. 실제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를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들은 국적에 따라 그 차이는 존재하지만 동포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그들의 잠재적인 거주지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만, 중국, 기타 아시아권,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출신 외국인들은 이러한 성향이 비아시아권 출신 외국인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2] 국적별 거주지 선택요인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국적	동포 등 외국인이 많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주거비용 이 저렴한 곳	직장과 가까운 곳	자녀 교육환경이 좋은 곳	자연환경 쾌적한 곳	한국인친구 와 가까운 곳	대학 근처	변화가 근처
중국	31.58%	34.42%	18.53%	11.79%	0.95%	2.74%	0.00%	0.00%	0.00%
일본	28.50%	45.00%	10.00%	8.50%	5.00%	3.00%	0.00%	0.00%	0.00%
대만	40.50%	26.00%	14.50%	8.50%	4.50%	6.00%	0.00%	0.00%	0.00%
베트남	10.00%	30.67%	35.33%	13.33%	5.33%	5.33%	0.00%	0.00%	0.00%
기타 아시아권	39.67%	22.67%	17.67%	15.33%	1.33%	3.33%	0.00%	0.00%	0.00%
미국	24.80%	49.20%	9.60%	11.20%	2.00%	2.80%	0.00%	0.00%	0.40%
영미권	18.00%	29.33%	28.67%	16.67%	2.00%	4.00%	1.33%	0.00%	0.00%
유럽권	23.33%	40.00%	15.33%	12.67%	3.33%	5.33%	0.00%	0.00%	0.00%
기타	26.67%	32.00%	20.67%	10.00%	2.67%	7.33%	0.00%	0.67%	0.00%



[그림 3-9] 국적별 거주지 선택요인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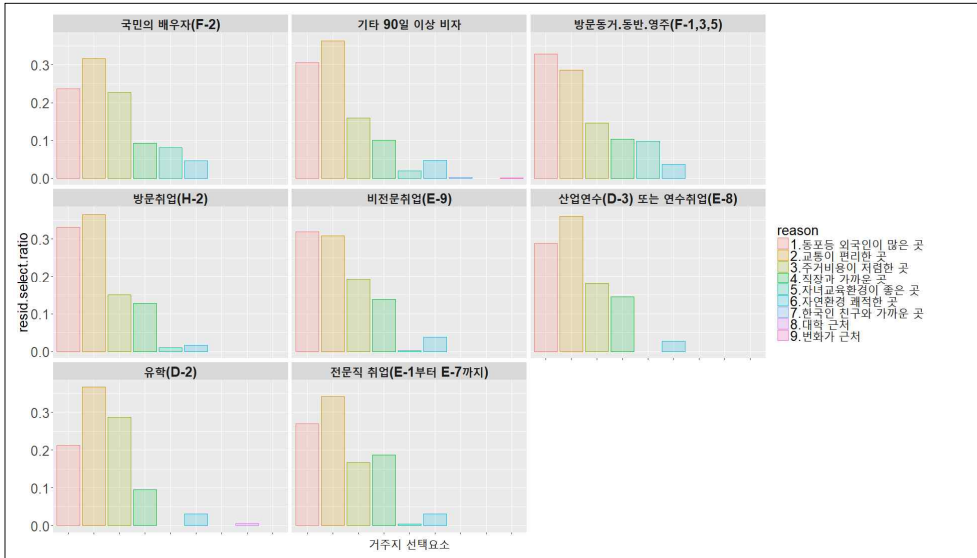
7) 체류자격별 거주지 선택요인

체류자격별 거주지 선택요인을 살펴보면 국적별 거주지 선택요인과 마찬가지로 체류자격별로 거주지 선택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방문동거·동반·영주(F-1, 3, 5),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동포 등 외국인이 많은 곳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타 유형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곳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3] 체류자격별 거주지 선택요인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국적	동포 등 외국인이 많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	직장과 가까운 곳	자연 교육환경 이 좋은 곳	자연환경 쾌적한 곳	한국인 친구와 가까운 곳	대학 근처	변화가 근처
국민의 배우자(F-2)	23.63%	31.65%	22.78%	9.28%	8.02%	4.64%	0.00%	0.00%	0.00%
기타 90일 이상 비자	30.55%	36.31%	15.98%	10.11%	2.00%	4.70%	0.24%	0.00%	0.12%
방문동거·동반·영 주(F-1,3,5)	32.93%	28.66%	14.63%	10.37%	9.76%	3.66%	0.00%	0.00%	0.00%
방문취업(H-2)	33.11%	36.45%	15.05%	12.71%	1.00%	1.67%	0.00%	0.00%	0.00%
비전문취업(E-9)	31.91%	30.90%	19.35%	13.82%	0.25%	3.77%	0.00%	0.00%	0.00%
산업연수(D-3) 또는 연수취업(E-8)	28.83%	36.04%	18.02%	14.41%	0.00%	2.70%	0.00%	0.00%	0.00%
유학(D-2)	21.28%	36.70%	28.72%	9.57%	0.00%	3.19%	0.00%	0.53%	0.00%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	26.98%	34.13%	16.67%	18.65%	0.40%	3.17%	0.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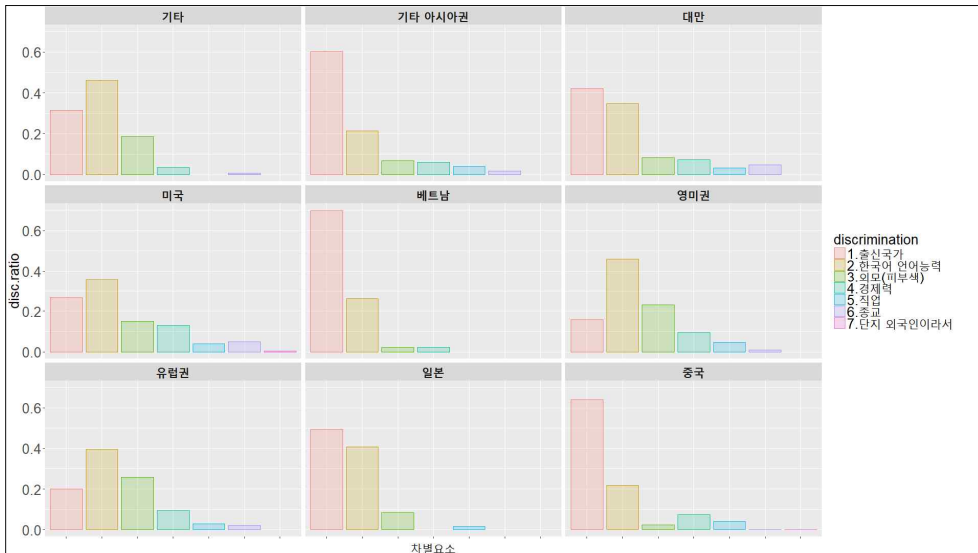


[그림 3-10] 체류자격별 거주지 선택요인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8) 국적별 외국인이 느끼는 차별 요인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의 외국인 응답자들은 그들이 차별대우를 받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①출신국가, ②한국어 언어능력, ③외모(피부색), ④경제력, ⑤직업, ⑥종교, ⑦단지 외국인이라서 등 총 7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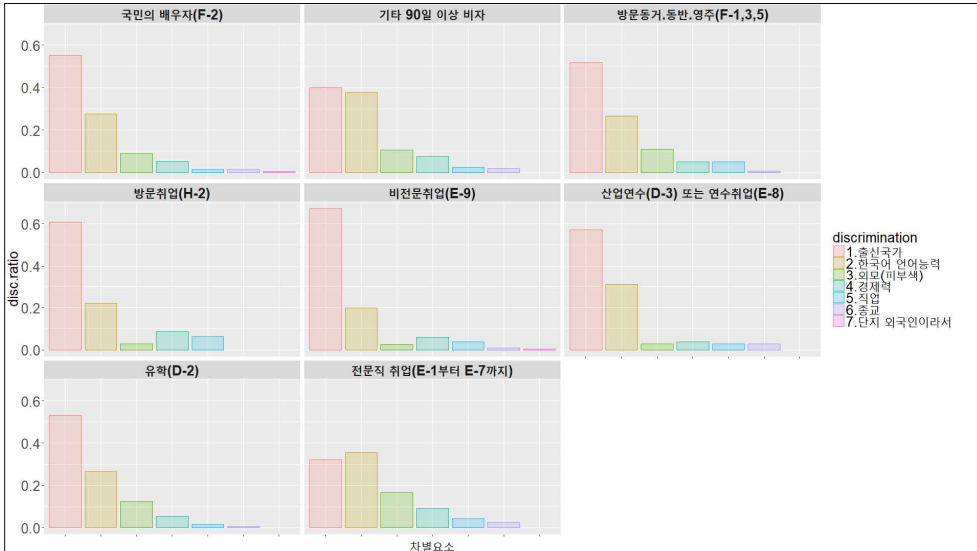
중국, 베트남, 일본, 대만, 기타 아시아권과 같은 아시아권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국가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영미권, 유럽권, 기타 국가 출신 외국인들은 출신국가보다 언어능력, 외모(피부색)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3-11] 국적별 외국인이 느끼는 차별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9) 체류자격별 외국인이 느끼는 차별 요인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전문직 취업과 기타 90일 이상 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차별요인으로 출신국가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또한 주요한 차별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3-12] 체류자격별 외국인이 느끼는 차별 -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2. 서울특별시 내 등록외국인 현황

등록외국인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의 출신국가, 체류자격, 연령 등의 기준을 이용하여 비교적 세부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지리적 분석 범위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내 등록외국인의 개략적인 분포를 국적,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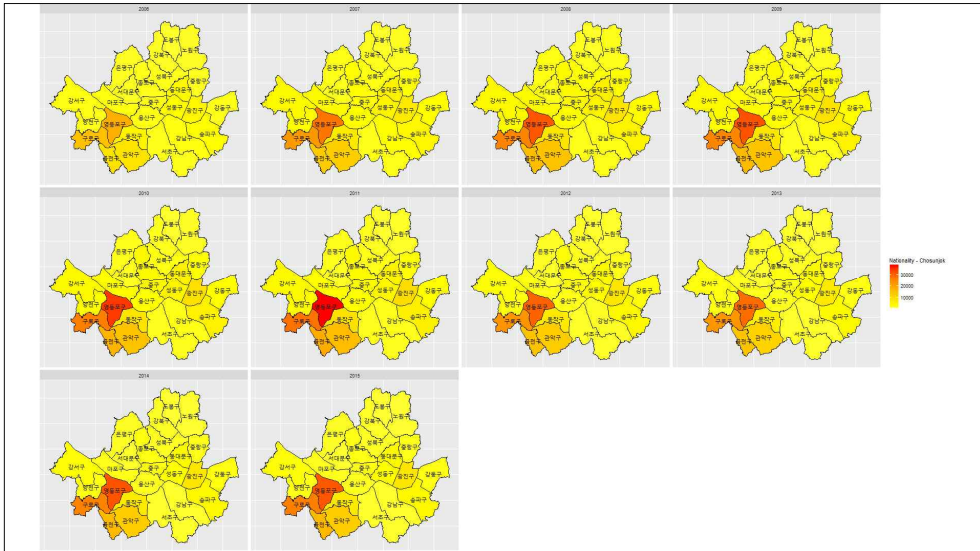
1) 국적별 등록외국인 분포

우선 국적별 등록외국인 분포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전체 등록외국인 대비 각각 51.71%, 20.59%로 그 구성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 거주지역은 공통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서남부(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인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에 비하여 비교적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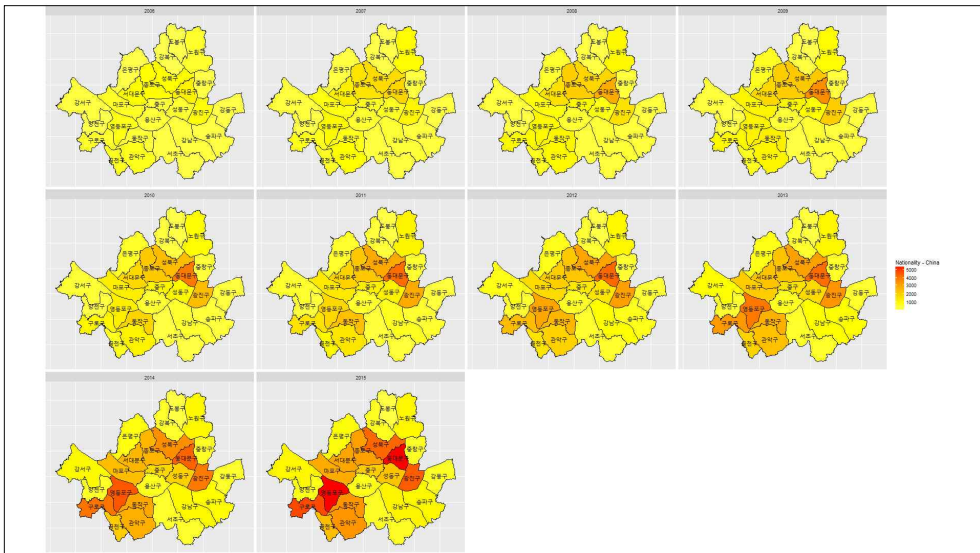
[표 3-14] 서울특별시 내 국적별 외국인 수 (2015)

국적	등록외국인 수	구성비율	분류 ¹⁵⁾
한국계 중국인	142,168	51.71%	개발도상국
중국	56,605	20.59%	개발도상국
미국	9,224	3.35%	선진국
타이완	8,753	3.18%	선진국
베트남	8,545	3.11%	개발도상국
일본	8,386	3.05%	선진국
기타	5,789	2.11%	선진국
몽골	4,747	1.73%	개발도상국
필리핀	3,677	1.34%	개발도상국
우즈베키스탄	1,923	0.70%	개발도상국
프랑스	1,904	0.69%	선진국
인도	1,863	0.68%	개발도상국
캐나다	1,790	0.65%	선진국
영국	1,472	0.54%	선진국
러시아	1,410	0.51%	개발도상국
독일	1,365	0.50%	선진국
타이	1,276	0.46%	개발도상국
파키스탄	1,150	0.42%	개발도상국
네팔	1,070	0.39%	개발도상국
인도네시아	1,060	0.39%	개발도상국
홍콩	1,043	0.38%	선진국
캄보디아	1,017	0.37%	개발도상국
말레이시아	1,012	0.37%	개발도상국
오스트레일리아	703	0.26%	선진국
나이지리아	654	0.24%	개발도상국
방글라데시	604	0.22%	개발도상국
사우디아라비아	602	0.22%	개발도상국
카자흐스탄	547	0.20%	개발도상국
미얀마	528	0.19%	개발도상국
싱가포르	413	0.15%	선진국
이탈리아	402	0.15%	선진국
터키	359	0.13%	개발도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40	0.12%	개발도상국
이란	323	0.12%	개발도상국
스리랑카	308	0.11%	개발도상국
네덜란드	271	0.10%	선진국
뉴질랜드	265	0.10%	선진국
브라질	257	0.09%	개발도상국
키르기스스탄	249	0.09%	개발도상국
스웨덴	249	0.09%	선진국
우크라이나	243	0.09%	개발도상국
아일랜드	235	0.09%	선진국
스위스	156	0.06%	선진국
합계	274,957	100.00%	

15) 선진국(Advanced economies)과 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의 분류는 World Economic Outlook(IMF, 2015) 상의 기준을 준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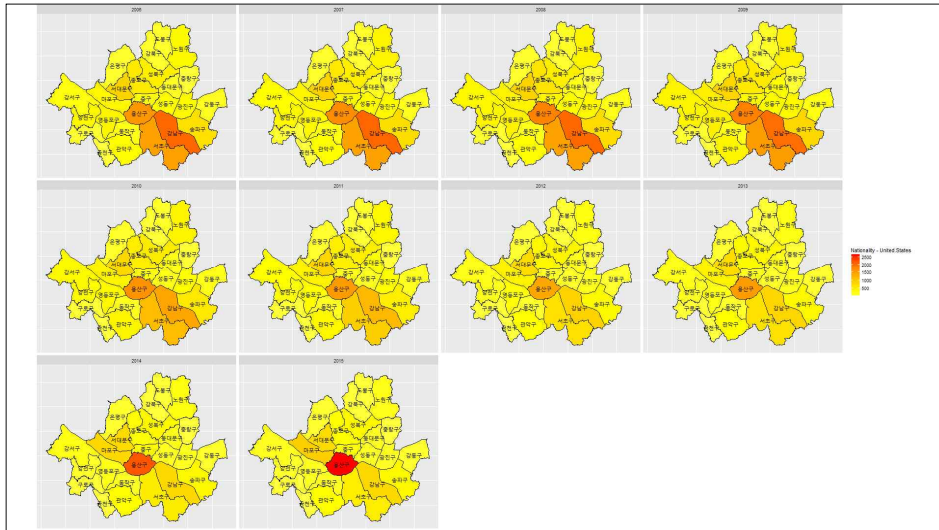


[그림 3-13] 한국계 중국인의 주 거주지역 변동 (2006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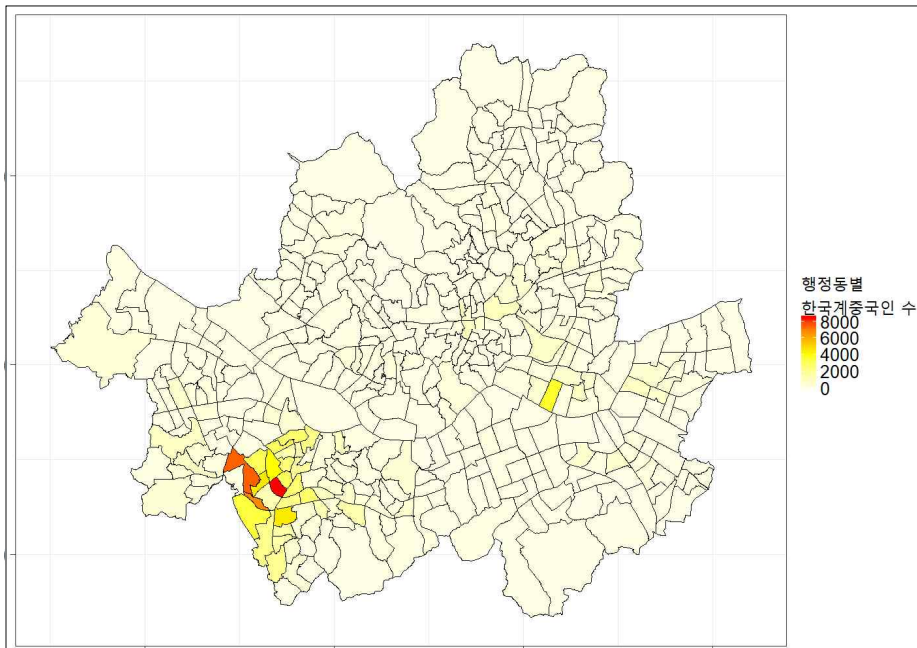


[그림 3-14] 중국인의 주 거주지역 변동 (2006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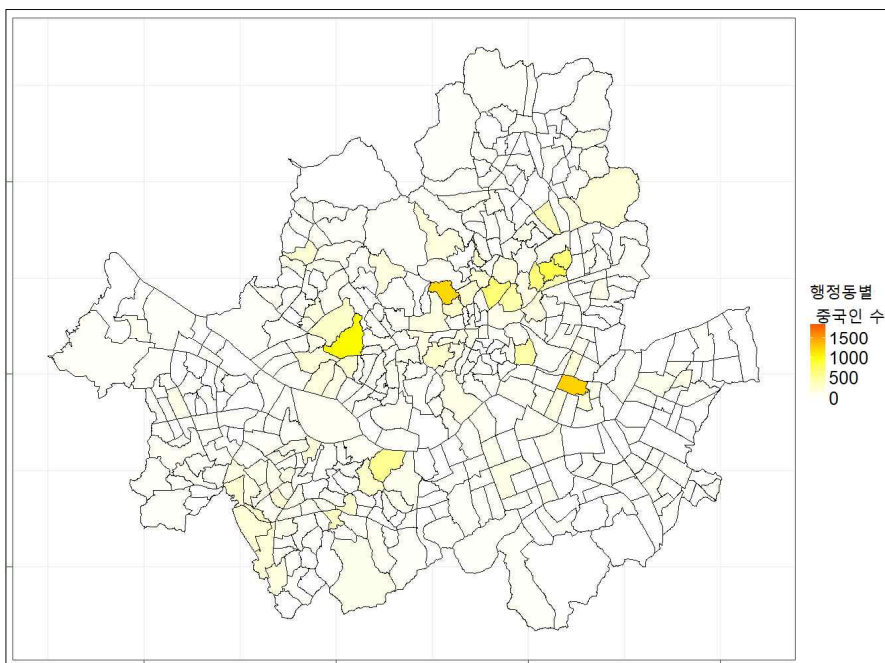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과 달리 미국 출신 등록외국인들은 용산구, 강남구 등 비교적 주택가격이 높고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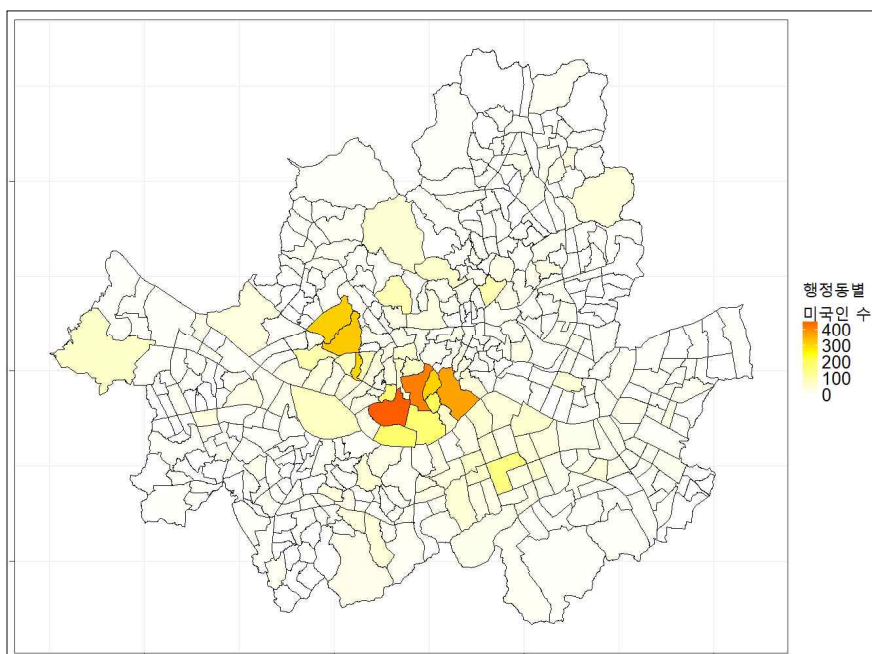
[그림 3-15] 미국인의 주 거주지역 변동 (2006 ~ 2015)



[그림 3-16] 한국계 중국인의 주 거주지역 (행정동 기준, 2015)



[그림 3-17] 중국인의 주 거주지역 (행정동 기준, 2015)



[그림 3-18] 미국인의 주 거주지역 (행정동 기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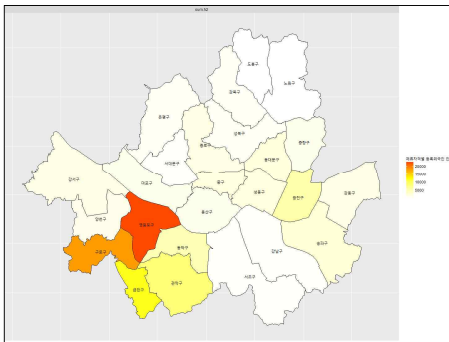
2)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분포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은 국적별 외국인에 비하여 그 편향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여러 종류의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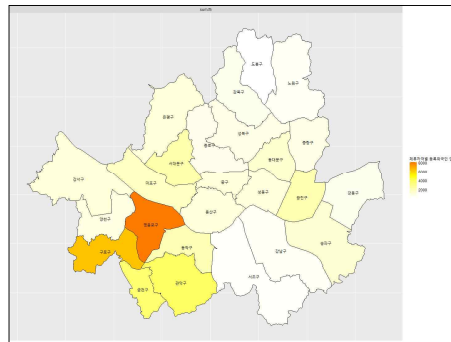
[표 3-15] 서울특별시 내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 (2015)

국적	등록외국인 수	전체 외국인 대비 비율
방문취업 (H-2)	96,194	34.99%
영주 (F-5)	45,751	16.64%
유학 (D-2)	25,531	9.29%
결혼이민 (F-6)	21,785	7.92%
방문동거 (F-1)	17,605	6.40%
일반연수 (D-4)	13,302	4.84%
거주 (F-2)	12,429	4.52%
동반 (F-3)	7,952	2.89%
특정활동 (E-7)	7,898	2.87%
비전문취업 (E-9)	4,457	1.62%
회화지도 (E-2)	3,960	1.44%
기타	3,704	1.35%
기업투자 (D-8)	3,217	1.17%
기타 (G-1)	2,781	1.01%
구직 (D-10)	2,395	0.87%
관광취업 (H-1)	1,306	0.47%
교수 (E-1)	880	0.32%
상사주재 (D-7)	755	0.27%
연구 (E-3)	616	0.22%
무역경영 (D-9)	603	0.22%
종교 (D-6)	565	0.21%
전문직업 (E-5)	525	0.19%
예술흥행 (E-6)	497	0.18%
취재 (D-5)	87	0.03%
기술지도 (E-4)	64	0.02%
산업연수 (D-3)	55	0.02%
문화예술 (D-1)	39	0.01%
선원취업 (E-10)	4	0.00%
합계	274,95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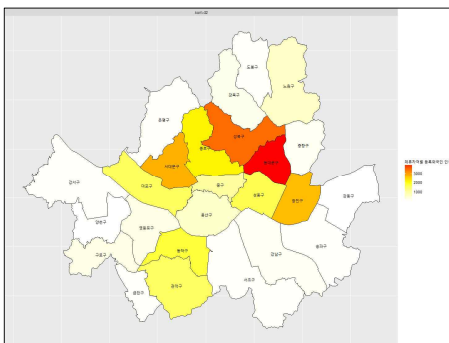
대표적 체류자격인 방문취업(H-2), 영주(F-5), 유학(D-2), 결혼이민(F-6)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치구 단위의 체류자격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체류자격이 방문취업, 영주, 결혼이민인 외국인은 서울특별시 서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동대문구, 성북구 등 서울특별시 동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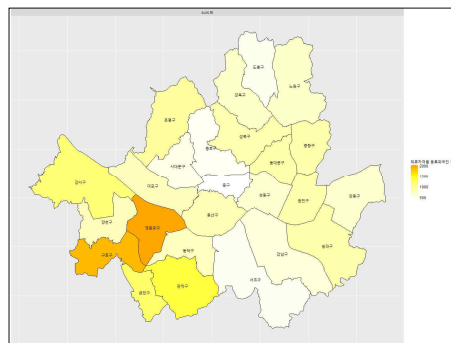
〔그림 3-19〕 자치구별 분포 - 방문취업(H-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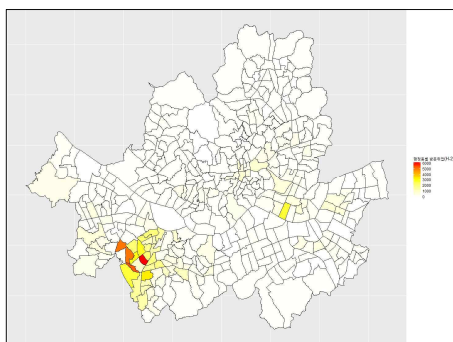
〔그림 3-20〕 자치구별 분포 - 영주(F-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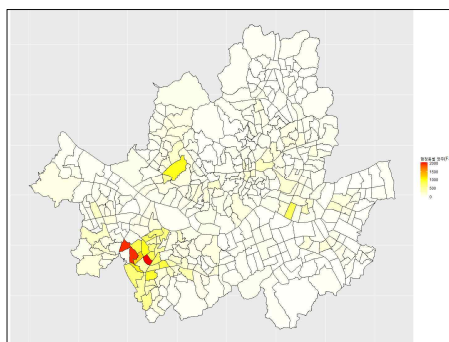
〔그림 3-21〕 자치구별 분포 - 유학(D-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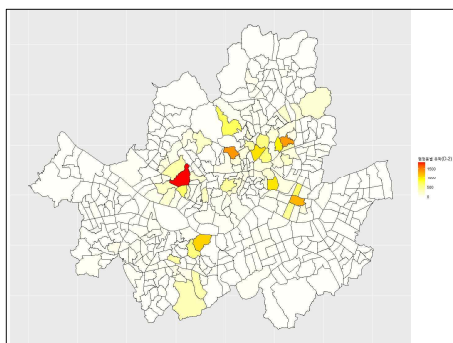
〔그림 3-22〕 자치구별 분포 - 결혼이민(F-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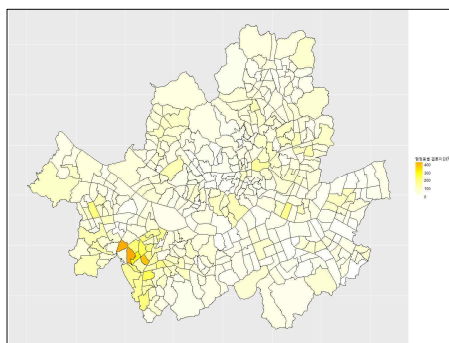
[그림 3-23] 행정동별 분포 - 방문취업(H-2)



[그림 3-24] 행정동별 분포 - 영주(F-5)



[그림 3-25] 행정동별 분포 - 유학(D-2)



[그림 3-26] 행정동별 분포 - 결혼이민(F-6)

[표 3-16] 체류자격별 외국인 밀집지역 - 상위 15개 행정동

방문취업 (H-2)	영주 (F-5)	유학 (D-2)	결혼이민 (F-6)	방문동거 (F-1)	일반연수 (D-4)	거주 (F-2)	동반 (F-3)	특정활동 (E-7)
영등포구 대림2동	영등포구 대림2동	서대문구 신촌동	구로구 구로2동	영등포구 대림2동	서대문구 신촌동	구로구 구로2동	용산구 한남동	서대문구 연희동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구 구로2동	종로구 해화동	영등포구 대림2동	구로구 구로2동	동대문구 제기동	영등포구 대림2동	용산구 이촌1동	용산구 한남동
구로구 구로2동	구로구 구로4동	동대문구 이문1동	구로구 구로4동	구로구 가리봉동	동대문구 이문1동	구로구 구로4동	용산구 한강로동	강남구 역삼1동
금천구 독산3동	구로구 가리봉동	광진구 화양동	금천구 독산3동	구로구 구로4동	광진구 화양동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이태원1동	마포구 서교동
구로구 구로4동	서대문구 연희동	동작구 흑석동	영등포구 대림3동	영등포구 대림3동	성북구 종암동	구로구 구로5동	서대문구 연희동	용산구 이태원1동
영등포구 대림3동	영등포구 대림3동	성북구 안암동	구로구 구로5동	금천구 독산3동	성북구 안암동	영등포구 대림3동	서초구 반포4동	용산구 이태원2동
광진구 자양4동	금천구 독산3동	성동구 사근동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구 구로5동	동대문구 회기동	금천구 독산3동	용산구 이태원2동	종로구 부암동
금천구 가산동	관악구 신사동	동대문구 회기동	금천구 시흥1동	영등포구 대림1동	동작구 흑석동	서대문구 연희동	용산구 보광동	종로구 종로1,2,3,4가동
영등포구 대림1동	구로구 구로5동	성북구 정릉3동	강서구 화곡1동	광진구 자양4동	마포구 대흥동	영등포구 대림1동	용산구 서빙고동	서대문구 신촌동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구 대림1동	마포구 대흥동	영등포구 신길5동	관악구 신사동	종로구 해화동	영등포구 도림동	마포구 상암동	종구 명동
구로구 구로5동	광진구 지양4동	광진구 군자동	영등포구 도림동	용산구 한남동	동작구 상도1동	관악구 신사동	서초구 방배4동	강남구 삼성1동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구 도림동	동대문구 제기동	관악구 신사동	영등포구 도림동	동대문구 휘경1동	영등포구 신길1동	용산구 용산2가동	서초구 서초2동
동작구 신대방1동	동작구 신대방1동	동작구 상도1동	광진구 자양4동	영등포구 신길5동	마포구 서교동	광진구 자양4동	용산구 원효로1동	마포구 망원1동
관악구 신사동	금천구 가산동	성북구 종암동	영등포구 신길1동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관악구 서림동	금천구 가산동	성북구 성북동	강남구 논현1동
영등포구 신길5동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광진구 자양4동	금천구 독산1동	영등포구 신길1동	성동구 사근동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성북구 월곡2동	마포구 대흥동

〔표 3-17〕 행정동·체류자격별 외국인 수의 상관관계수행렬

	유학 (D-2)	일반 연수 (D-4)	기업 투자 (D-8)	회화 지도 (E-2)	특정 활동 (E-7)	비전문 취업 (E-9)	방문 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영주 (F-5)	결혼 이민 (F-6)	기타 (G-1)	방문 취업 (H-2)	기타
유학 (D-2)		0.8971	-0.0028	0.1872	0.2482	-0.009	-0.0056	0.0682	0.0873	0.0276	0.0000	0.0748	-0.0030	-0.0151
일반연수 (D-4)	0.8971		0.0083	0.1987	0.2398	0.0122	-0.0009	0.0665	0.0842	0.0303	0.0220	0.0901	-0.0026	-0.0202
기업투자 (D-8)	-0.0028	0.0083		0.2579	0.5545	0.0453	0.0954	0.0345	0.9039	0.0128	0.0223	0.3894	-0.0234	0.7140
회화지도 (E-2)	0.1872	0.1987	0.2579		0.5124	0.0171	0.0271	0.0533	0.2507	0.0099	0.0550	0.2175	-0.0448	0.2826
특정활동 (E-7)	0.2482	0.2398	0.5545	0.5124		0.1107	0.1060	0.1625	0.5623	0.1325	0.0666	0.4064	0.0055	0.4459
비전문취업 (E-9)	-0.0090	0.0122	0.0453	0.0171	0.1107		0.2913	0.3046	0.0382	0.2968	0.3189	0.0613	0.3504	-0.0085
방문동거 (F-1)	-0.0056	-0.0009	0.0954	0.0271	0.1060	0.2913		0.9555	0.1011	0.9530	0.9112	0.3156	0.9516	0.0702
거주 (F-2)	0.0682	0.0665	0.0345	0.0533	0.1625	0.3046	0.9555		0.0409	0.9859	0.8959	0.2623	0.9312	-0.0060
동반 (F-3)	0.0873	0.0842	0.9039	0.2507	0.5623	0.0382	0.1011	0.0409		0.0239	0.0367	0.4431	-0.0424	0.7386
영주 (F-5)	0.0276	0.0303	0.0128	0.0099	0.1325	0.2968	0.9530	0.9859	0.0239		0.8942	0.2091	0.9346	-0.0367
결혼이민 (F-6)	0.0000	0.0220	0.0223	0.0550	0.0666	0.3189	0.9112	0.8959	0.0367	0.8942		0.2514	0.8488	-0.0236
기타 (G-1)	0.0748	0.0901	0.3894	0.2175	0.4064	0.0613	0.3156	0.2623	0.4431	0.2091	0.2514		0.2031	0.4034
방문취업 (H-2)	-0.0030	-0.0026	-0.0234	-0.0448	0.0055	0.3504	0.9516	0.9312	-0.0424	0.9346	0.8488	0.2031		-0.0529
기타	-0.0151	-0.0202	0.7140	0.2826	0.4459	-0.0085	0.0702	-0.0060	0.7386	-0.0367	-0.0236	0.4034	-0.0529	

3) 국적별 ·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국적과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의 경우 각각의 분류에 대한 지역별 분포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체류자격과 국적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록외국인의 지리적 분포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등록외국인의 출신국가별 체류자격을 검토함으로써 각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내 국적별 ·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계 중국인들의 경우 방문취업(H-2)과 영주(F-5)의 비중이 각각 67.16%, 21.48%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주로 취업 및 일시적 정착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의 경우에는 유학(D-2)과 일반연수(D-6)의 비중이 각각 26.40%, 14.58%로 높은 가운데 방문동거(F-1), 영주(F-5), 결혼이민(F-6)의 비중 또한 17.06%, 11.15%, 8.89%로 동일 국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 출신의 외국인들은 특이하게 영주(F-5) 자격으로 체류하는 비율이 전체 체류자격 대비 62.8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미권 국가 출신의 주 체류자격은 회화지도(E-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를 확인하였을 때 각 국가별로 주 체류목적에서 차이를 보이며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국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목적에서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8〕 서울특별시 내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

체류자격	합계	한국계 중국인	중국	미국	대만	일본	베트남	몽골
문화예술 (D-1)	0.01%	0.00%	0.04%	0.01%	0.00%	0.02%	0.01%	0.04%
유학 (D-2)	9.29%	0.11%	26.40%	7.03%	4.25%	8.36%	10.37%	20.50%
산업연수 (D-3)	0.02%	0.01%	0.02%	0.00%	0.00%	0.00%	0.09%	0.00%
일반연수 (D-4)	4.84%	0.04%	14.58%	1.39%	2.67%	8.11%	7.91%	23.76%
취재 (D-5)	0.03%	0.00%	0.02%	0.09%	0.01%	0.50%	0.01%	0.00%
종교 (D-6)	0.21%	0.00%	0.03%	2.44%	0.05%	0.29%	0.25%	0.21%
상사주재 (D-7)	0.27%	0.01%	0.33%	0.75%	0.10%	2.46%	0.09%	0.53%
기업투자 (D-8)	1.17%	0.07%	0.68%	1.96%	0.42%	13.49%	0.04%	0.67%
무역경영 (D-9)	0.22%	0.00%	0.07%	0.08%	0.02%	0.36%	0.00%	0.82%
구직 (D-10)	0.87%	0.00%	2.81%	1.05%	0.17%	0.20%	0.56%	6.17%
교수 (E-1)	0.32%	0.00%	0.13%	2.99%	0.13%	0.55%	0.08%	0.06%
회화지도 (E-2)	1.44%	0.00%	0.31%	22.83%	0.02%	0.93%	0.01%	0.00%
연구 (E-3)	0.22%	0.00%	0.16%	0.40%	0.02%	0.70%	0.43%	0.17%
기술지도 (E-4)	0.02%	0.00%	0.00%	0.13%	0.00%	0.00%	0.00%	0.00%
전문직업 (E-5)	0.19%	0.00%	0.00%	0.75%	0.32%	0.26%	0.00%	0.00%
예술흥행 (E-6)	0.18%	0.00%	0.12%	0.63%	0.02%	0.32%	0.09%	0.21%
특정활동 (E-7)	2.87%	0.01%	6.58%	8.49%	1.58%	2.66%	2.34%	1.94%
비전문취업 (E-9)	1.62%	0.80%	0.63%	0.00%	0.00%	0.01%	7.24%	6.87%
선원취업 (E-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방문동거 (F-1)	6.40%	2.22%	17.06%	4.01%	2.79%	1.60%	23.31%	4.34%
거주 (F-2)	4.52%	3.40%	7.74%	1.72%	17.91%	2.29%	5.24%	2.23%
동반 (F-3)	2.89%	0.02%	1.12%	8.01%	0.57%	14.09%	1.79%	17.57%
영주 (F-5)	16.64%	21.48%	11.16%	4.23%	62.85%	17.58%	2.01%	2.38%
결혼이민 (F-6)	7.92%	4.52%	8.89%	10.15%	2.60%	18.82%	36.71%	7.14%
기타 (G-1)	1.01%	0.14%	0.90%	0.16%	0.01%	0.01%	0.25%	3.12%
관광취업 (H-1)	0.47%	0.00%	0.00%	0.17%	3.36%	5.22%	0.00%	0.00%
방문취업 (H-2)	34.99%	67.16%	0.01%	0.01%	0.00%	0.00%	0.00%	0.00%
기타	1.35%	0.00%	0.22%	20.52%	0.11%	1.17%	1.15%	1.26%

[표 3-19] 서울특별시 내 국적별 ·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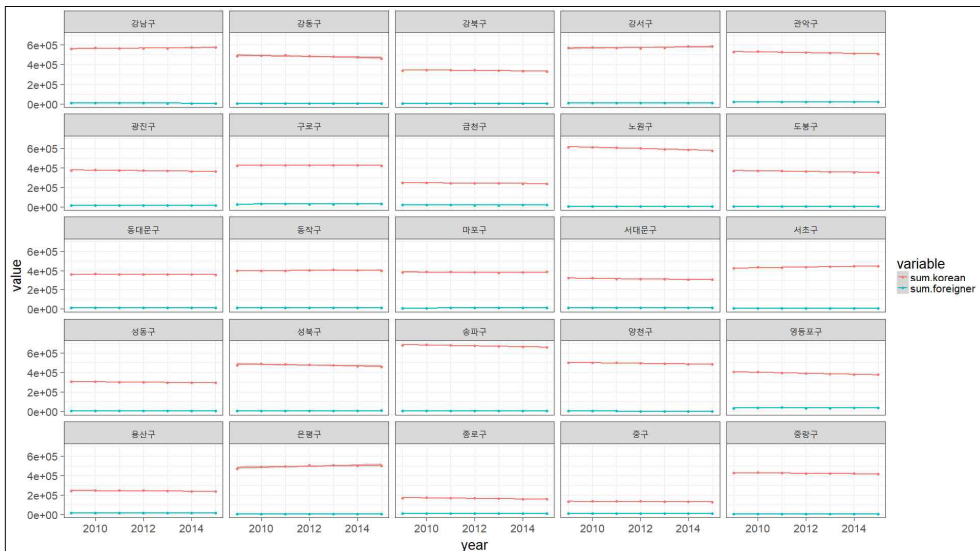
체류자격	필리핀	캐나다	우즈벡	러시아	인도	타이	영국	프랑스
문화예술 (D-1)	0.03%	0.00%	0.00%	0.14%	0.00%	0.08%	0.00%	0.00%
유학 (D-2)	4.51%	5.31%	14.87%	13.05%	11.11%	14.50%	6.45%	24.11%
산업연수 (D-3)	0.4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일반연수 (D-4)	1.69%	1.06%	7.07%	10.35%	1.56%	5.72%	1.43%	4.83%
취재 (D-5)	0.00%	0.06%	0.00%	0.07%	0.00%	0.00%	0.54%	0.05%
종교 (D-6)	1.96%	0.56%	0.00%	0.07%	0.91%	0.16%	0.00%	0.32%
상사주재 (D-7)	0.08%	0.11%	0.16%	0.35%	3.49%	0.16%	1.15%	1.42%
기업투자 (D-8)	0.33%	2.01%	0.83%	2.27%	5.15%	0.63%	4.35%	8.77%
무역경영 (D-9)	0.19%	1.01%	0.78%	0.28%	3.17%	1.65%	1.36%	1.21%
구직 (D-10)	0.92%	0.56%	1.09%	1.49%	0.86%	0.78%	1.15%	0.79%
교수 (E-1)	0.08%	4.08%	0.16%	0.99%	3.76%	0.31%	3.60%	1.73%
회화지도 (E-2)	0.00%	35.98%	0.00%	0.99%	0.00%	0.00%	31.39%	0.79%
연구 (E-3)	0.08%	0.34%	0.21%	0.99%	10.41%	0.31%	0.88%	0.89%
기술지도 (E-4)	0.00%	1.23%	0.00%	0.00%	0.11%	0.00%	0.14%	0.00%
전문직업 (E-5)	0.35%	2.46%	0.00%	2.13%	0.21%	0.39%	1.22%	0.21%
예술흥행 (E-6)	2.31%	0.67%	0.26%	1.84%	0.00%	0.63%	0.68%	1.16%
특정활동 (E-7)	5.96%	7.60%	1.56%	3.97%	19.22%	20.85%	12.43%	9.35%
비전문취업 (E-9)	19.42%	0.00%	0.83%	0.14%	0.00%	12.77%	0.00%	0.00%
선원취업 (E-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방문동거 (F-1)	19.99%	2.91%	11.02%	9.50%	1.61%	2.19%	0.95%	0.53%
거주 (F-2)	2.09%	1.79%	2.91%	3.90%	2.15%	0.94%	1.90%	1.52%
동반 (F-3)	6.26%	5.59%	5.82%	9.15%	29.63%	3.13%	12.70%	21.11%
영주 (F-5)	2.37%	7.82%	7.54%	13.62%	2.20%	6.82%	3.60%	2.57%
결혼이민 (F-6)	27.98%	17.15%	10.61%	11.77%	1.66%	25.00%	11.82%	8.77%
기타 (G-1)	0.41%	0.00%	1.04%	2.91%	0.70%	0.63%	0.07%	0.05%
관광취업 (H-1)	0.00%	0.61%	0.00%	0.00%	0.00%	0.00%	0.34%	9.14%
방문취업 (H-2)	0.00%	0.00%	31.41%	0.64%	0.00%	0.00%	0.00%	0.00%
기타	2.53%	1.12%	1.82%	9.36%	2.09%	2.35%	1.83%	0.68%

4) 등록외국인 종합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적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신국가와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에서 기인하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집단, 유학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집단, 혼인 혹은 동거와 같은 방식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집단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은 각자의 체류목적 및 거주지 선택요인에 의하여 서로 상이한 지역에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동

외국인과 내국인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수의 시점별 변동을 살펴보면 각 자치구의 인구구조의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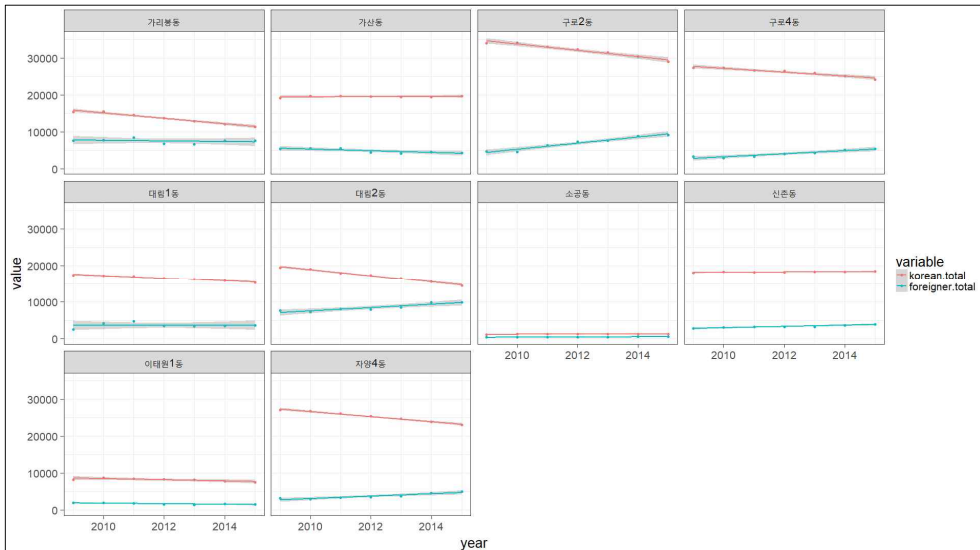


[그림 3-27] 자치구별 한국인(적색)·외국인(녹색) 분포

하지만 분석의 단위를 각 자치구 내 행정동 단위로 변경할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의 인구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전체 거주민 대비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은 10개 동을 추출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시계열적인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3-20] 외국인 비율 상위 10개 행정동 (2015)

자치구명	행정동명	한국인 수	외국인 수	외국인 비율
영등포구	대림2동	14,509	9,952	40.69%
구로구	가리봉동	11,309	7,625	40.27%
중구	소공동	1,248	621	33.23%
구로구	구로2동	29,017	9,108	23.89%
영등포구	대림1동	15,339	3,607	19.04%
구로구	구로4동	24,155	5,362	18.17%
금천구	가산동	19,628	4,298	17.96%
광진구	자양4동	23,047	4,986	17.79%
서대문구	신촌동	18,545	4,000	17.74%
용산구	이태원1동	7,473	1,557	17.24%



[그림 3-28] 외국인 비율 상위 10개 행정동의 동별
한국인(적색)·외국인(녹색) 인구 변화

행정동별 내국인과 외국인의 시계열적 변동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역 외국인의 수가 증가할 경우 내국인의 숫자는 줄어든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4동, 대림1동, 대림2동 등 서울특별시 남서부에 위치한 행정동과 자양4동의 경우 내국인 인구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내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내국인의 유출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지역별 주택가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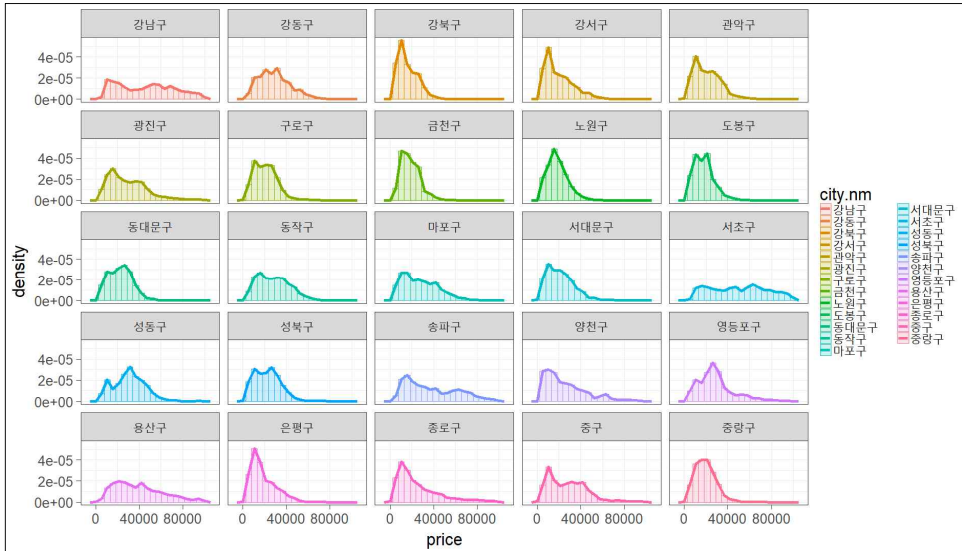
1)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

주택가격¹⁶⁾이 거주자들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이 매겨진 주택은 사회구성원들 간에 해당 주택의 물리적 품질과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근린환경, 교육환경, 경제환경이 우수하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은 내국인 및 외국인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¹⁷⁾이며 이들의 거주지 결정에 의하여 다시 조정되는 내생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거주지에 관하여 탐구할 때 지역별 주택가격의 분포 또한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동별 주택가격, 주택가격 불평등 정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하지만 주택가격은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Shiller, 1990).

17) 외국인들의 경우 거주지 선택요인 중에서 ‘자녀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고 ‘동포 등 외국인이 많은 곳’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그림 3-29] 자치구별 주택가격 분포 (단위:만 원)

자치구별 주택가격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등의 주택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금천구 등의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21] 자치구별 평균주택가격 (단위:만 원)

상위 10개 자치구		하위 10개 자치구	
자치구명	평균주택가격	자치구명	평균주택가격
서초구	59,954	서대문구	22,102
강남구	59,580	관악구	21,371
용산구	47,815	구로구	21,007
송파구	39,711	강서구	20,118
성동구	31,948	중랑구	19,563
광진구	30,101	노원구	18,859
영등포구	29,804	금천구	18,762
강동구	29,627	은평구	18,752
중구	29,153	도봉구	17,971
마포구	28,981	강북구	16,345

[표 3-22]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 (단위:만 원)

상위 10개 행정동			하위 10개 행정동		
자치구명	행정동명	평균 주택가격	자치구명	행정동명	평균 주택가격
서초구	반포본동	128,271	강서구	가양2동	12,922
서초구	반포2동	108,110	강서구	화곡2동	12,920
강남구	압구정동	107,340	강북구	수유1동	12,777
강남구	대치1동	103,549	강서구	화곡8동	12,586
강남구	도곡2동	98,239	양천구	신월3동	12,469
강남구	신사동	89,591	도봉구	방학2동	12,081
송파구	잠실7동	86,029	종로구	교남동	11,713
강남구	삼성1동	85,231	강서구	화곡본동	11,564
서초구	반포1동	79,123	강북구	번2동	10,585
서초구	서초4동	77,202	양천구	신월7동	10,010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을 살펴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속한 반포본동, 반포2동, 압구정동 등의 주택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천구, 강북구, 강서구 등에 속한 신월7동, 번2동, 화곡본동 등 행정동의 경우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평균주택가격을 이용한 군집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¹⁸⁾을 이용한 대표적인 데이터 군집 방법인 k-평균 군집(k-means clustering)과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424개 행정동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행정동 군집의 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분상의 편의를 위하여 총 3개의 군집으로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을 분류하였다.

18)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는 달리 기존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론이다.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한 이후 각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 간의 총 편차를 설명하는 전체 제곱합(total sum of squares)과 집단 간 이질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집단 간 제곱합(between sum of squares)을 각각 산출하였으며 전체 제곱합 중 집단 간 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했음(BSS/TSS)으로써 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전체 제곱합(TSS)의 경우 118,367,152,157이며 집단 간 제곱합(BSS)은 98,342,278,784으로 나타났으며 BSS/TSS는 0.8308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료 전체의 편차 중에서 집단 간의 편차의 비율이 약 83.08% 수준임을 의미하며 집단 내의 편차(within sum of squares, 1-BSS/TSS)보다 집단 간의 편차가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상기한 방법을 이용한 행정동의 분류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23]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을 이용한 군집분석 결과

군집명	하위 군집	중위 군집	상위 군집
군집 중심 (단위:만 원)	21,345.55	41,288.02	78,831.82
행정동 수	310	87	27

3) 주택가격의 지리적 분포

주택가격의 지리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을 추출하여 이를 지도 상에 표기하였을 때 주택가격은 인접한 지역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의 공간적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Global Moran's I Test를 수행하였으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Test 수행결과 Moran's I Statistics는 17.96($p < 0.000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이 공간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Moran's\ I = \frac{n}{\sum_{i=1}^n \sum_{j=1}^n w_{ij}} \frac{\sum_{i=1}^n \sum_{j=1}^n w_{ij} z_i z_j}{\sum_{i=1}^n z_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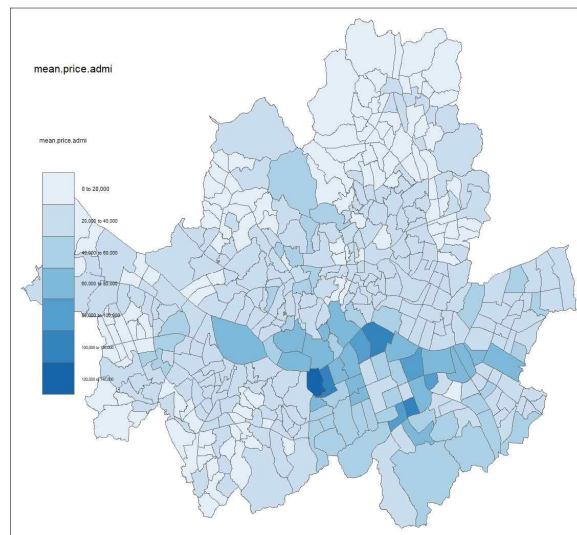
z_i : 지역 i 의 평균 주택가격과 전체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과의 차이($x_i - \bar{X}$)

x_i : 지역 i 의 평균 주택가격

\bar{X} : 전체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w_{i,j}$: 지역 i, j 간의 공간가중치

n : 지역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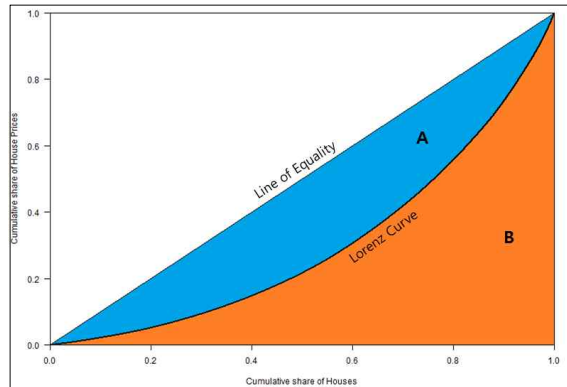


[그림 3-30]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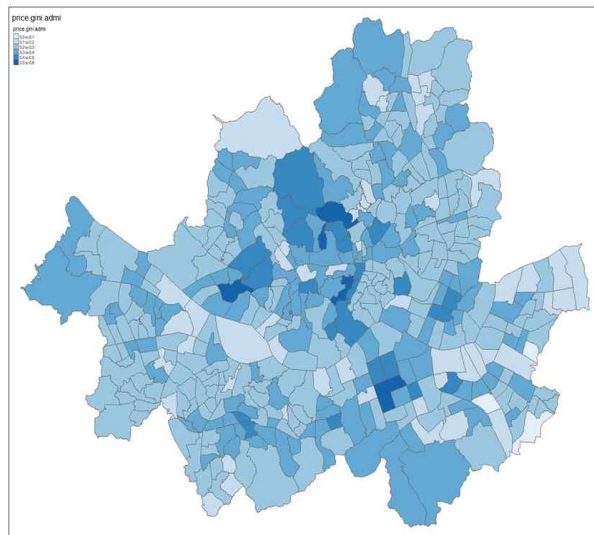
4) 행정동별 주택가격 불평등

평균주택가격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을 대표하는 수치로써 의미가 있지만 실제 행정동 내 주택가격의 분포를 대변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평균주택가격과 더불어 해당 행정동 내의 주택가격의 불평등 정도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지니계수는 로렌츠 커브(Lorenz Curve)와 평등선(Line of Equality) 사이의 면적으로 산출되며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1] 지니계수의 도식화



[그림 3-32] 행정동별 주택가격 불평등

5) 저렴한주택의 비율

앞서 정의한 외국인 중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액 또한 선진국 출신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주거비 제약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렴한 주택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내 268만 개 주택의 분위수를 살펴보았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주택의 중위가격은 약 2억 2,800만 원이며 하위 10% 주택가격은 8,4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 상의 편의를 위하여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저렴주택으로 정의하였으며 해당 주택은 총 38만 6,645 호로 전체 268만 5,492호 중 약 14.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 3-24] 주택가격분위 (단위: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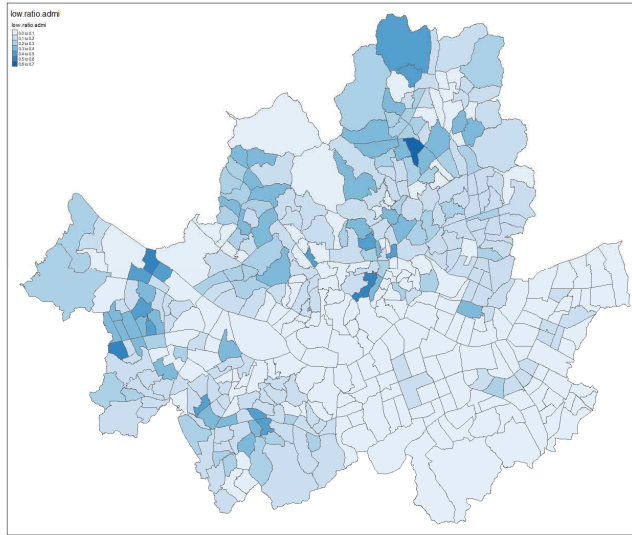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8,400	11,600	14,900	18,600	22,800	27,200	32,400	40,500	57,200	1,700,000

또한 이러한 저렴주택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변동과 경제적 지위 차이로 인한 신뢰의 변동에 대한 변별력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공간적 분포를 검토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경제적 박탈(economic deprivation)의 경우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Letki, 2008; Gesthuizen et al., 2009; Sturgis et al., 2011)에 비추어볼 때 저렴주택의 비율은 사회적 신뢰의 통제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25] 행정동별 저렴주택비율 - 상위 20개 행정동

자치구	행정동	전체주택	저렴주택	비율
강북구	번2동	6,521	4,054	62.17%
양천구	신월7동	8,430	4,966	58.91%
강서구	가양2동	7,083	3,994	56.39%
중구	장충동	2,392	1,230	51.42%
강서구	화곡본동	11,189	5,578	49.85%
도봉구	방학2동	5,421	2,671	49.27%
도봉구	도봉1동	6,223	2,921	46.94%
종로구	교남동	1,496	702	46.93%
종로구	이화동	2,554	1,184	46.36%
강서구	가양3동	7,435	3,422	46.03%
강서구	등촌3동	13,152	5,887	44.76%
관악구	신림동	3,198	1,418	44.34%
종로구	숭인2동	3,031	1,319	43.52%
구로구	구로4동	8,247	3,583	43.45%
관악구	서원동	5,056	2,048	40.51%
강서구	화곡2동	5,447	2,185	40.11%
양천구	신월3동	3,720	1,463	39.33%
강북구	미아동	6,110	2,393	39.17%
강북구	수유1동	5,956	2,303	38.67%
양천구	신정7동	10,863	4,195	38.62%



[그림 3-33] 행정동별 저렴주택 비율

제 5 절 연구가설 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층별 거주지 및 근린환경으로 대변될 수 있는 거주환경과 외국인들의 거주 지역 선택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주환경에 대한 적절한 논의를 배제한 채로 외국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분석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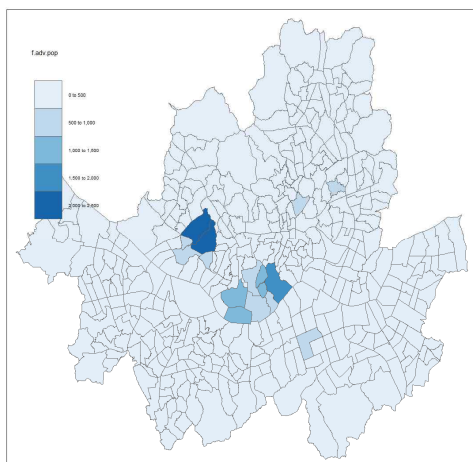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탐구 목적인 외국인과의 접촉과 더불어 경제적 계층의 혼합, 근린환경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영향력 또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한다.

1. 외국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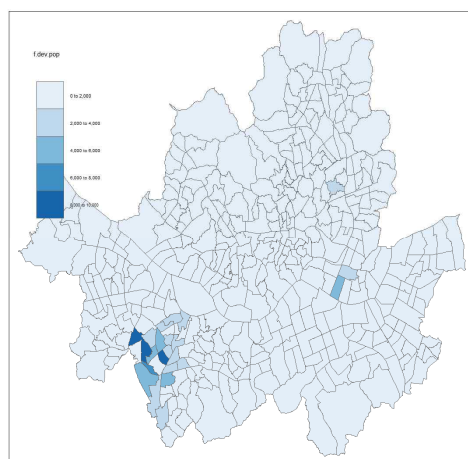
1) 외국인의 분류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 상에 기재된 외국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등록외국인의 국적별·체류자격별 지리적 분포를 검토하였을 때 서울특별시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나뉘
거나 전문직 취업(E-1~E-7)과 기타 체류자격(방문취업, 비전문취업, 산
업연수, 방문동거,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분류의 결과물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구권 혹은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하는바¹⁹⁾ 본 연구
에서는 국내 체류외국인을 개략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이
분²⁰⁾하기로 한다.



[그림 3-34] 선진국 출신
외국인 분포



[그림 3-35]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분포

2) 외국인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19) 한국 대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김동수 외, 2011)에서 대학생들은
미국인의 경우 긍정적, 중국인의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회 전반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20)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World Economic
Outlook(IMF, 2015)에서 차용하였으며 그 기준은 부록에 제시하기로 한다.

사회적 신뢰를 ‘이웃에 대한 신뢰’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며 외국인과의 접촉은 선진국 출신과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이분된 외국인 집단의 지역 내 거주비율을 이용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오랜 기간 동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유럽, 미국 등과 달리 한국 사회는 근래에 들어 급격한 속도로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거나(assimilation)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관용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접촉은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 그리고 외국인 범죄 등과 같은 외국인 유입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의 발생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외국인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편견 혹은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외국인 집단별로 사회적 신뢰에 상이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출신국가별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고정관념에 더하여 외국인들은 각 출신 국가에서부터 각자 형성해온 사회적 신뢰 수준이 상이할 것이며 선진국일 경우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다는 Fukuyama의 주장에 의거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증가는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경우 선진국 출신 외국인과 반대의 경우로 이들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이들 고유의 낮은 사회적 신뢰 수준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신뢰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 1.1. 지역 내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비율의 증가는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지역 내 선진국 출신 외국인 비율의 증가는 사회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인구 유출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연구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내국인의 유출이 발생하며 이는 지역 사회의 원주민 커뮤니티를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의 약화 및 사회적 신뢰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거주 인구 대비 유출 인구 비율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유출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유출의 경우 전적으로 외국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설 2. 거주 인구 대비 높은 유출 인구 비율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것이다.

3. 거주환경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계층의 혼합과 사회적 신뢰

외국인에 대한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그들의 출신 국가, 인종, 소득수준, 종교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며 만약 이들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외국인 거주지 관리 정책은 경제적 계층 혼합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의 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경제적 요소와 비경제적 요소로 나누기 위하여 지역 내 경제적 혼합 및 저렴주택의 비율을 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²¹⁾.

상기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판단해보았을 때 사회적 혼합으로 표현되는

21)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으며 지역 내 저렴주택의 비율 혹은 주택가격의 불평등 정도로 이들의 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영향력을 일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적 계층의 혼합은 사회적 자본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사회구성원들이 자신과 유사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과 인접하여 거주할 경우 계층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손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자본 수준 또한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혼합과 저렴주택은 그 분석 대상이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해당 지역 전반의 사회적 혼합도와 저소득층 비율로 작용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설 3.1. 지역 내 주택가격 불평등은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2. 지역 내 저렴주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근린환경과 사회적 신뢰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근린환경에 거주하거나 개인이 인식하는 근린환경의 수준이 우수할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 보행활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 및 신뢰 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안전 수준과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수준의 경우에도 사회적 활동 참여 정도 및 신뢰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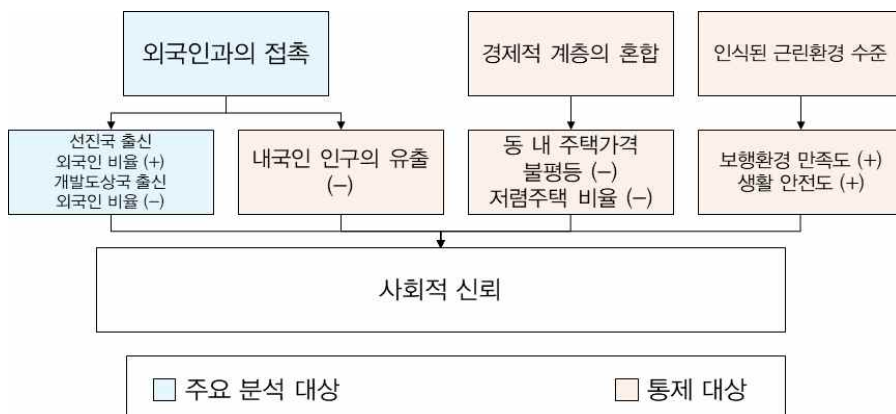
가설 4. 근린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사회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 연구가설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분류별 외국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이와 함께 도시환경의 측면에서 경제적 계층의 혼합과 근린환경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근린환경이 사회구성원들의 거주지 선택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적 계층의 혼합은 외국인 유입에 의한 사회적 신뢰의 변동이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해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과의 접촉을 대변하는 변수로는 분류별 등록 외국인 대비 행정동 내 전체 인구 비율을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유출 인구 비율 정보를 이용하여 거주지의 구성적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경제적 계층의 혼합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 내 주택가격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투입하였으며 근린환경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이는 크게 보행환경 만족도(거주지, 시내, 야간)와 생활 안전도(범죄·폭력, 소음, 쓰레기 방치)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6] 연구가설의 종합

제 4 장 사회적 신뢰 영향 요인 분석

제 1 절 외국인과의 접촉 모형

1. 다수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1) 분석 자료의 특성

실증 분석에 이용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신뢰’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5점 척도(1~5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서울서베이의 설문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으로 이들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공간적으로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2) 다수준 모형의 필요성

약 1천만 명의 인구규모를 갖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약 40만 명의 인구규모를 갖는 자치구, 그리고 약 2만 명 규모의 행정동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속한 지리적 경계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경계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 네트워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로 차별적인 속성이 형성되거나 지역 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개인적 특성과 개인이 속한 집단 및 지역의 특징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을 이용하며 본 연구의 경우에도 개인 수준의 변수와 개인이 속한 행정동 수준의 지역변수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이러한 다수준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3)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필요성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는 설문항목인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신뢰’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각 점수는 순위로만 등치될 수 있는 서열척도(ordinal measure)로 각 신뢰 수준 간의 차이가 일정하거나 실질적인 0점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이산형(discrete) 변수의 분석에는 주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이 이용되며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이용하는 신뢰 수준은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4) 다수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2. 변수별 기초통계량

서울서베이(2015)는 25개 자치구, 424개 행정동에 속한 총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총 가구원은 46,837명이다. 전술한 데이터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데이터 정제과정을 거친 이후 총 415개 행정동에 속한 46,547명의 응답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모형에 투입한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수준 변수

개인수준 변수는 크게 수치형(numeric)으로 기재된 연속형 변수와 각각

22) 각 신뢰 수준 간의 차이가 일정할 경우 등간척도(interval measures), 실질적 0점이 존재할 경우 비척도(ratio measures)로 간주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신뢰 수준은 상기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서열척도(ordinal measures)로 분석한다.

의 응답이 이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산형 변수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신뢰 수준, 연령, 거주기간, 사회활동 참여 건수와 같은 변수는 연속형 변수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별, 거주유형, 점유형태 등은 이산형 변수라 할 수 있다. 개인수준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기재함에 있어 연속형 변수의 경우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을 제시하였으며 이산형 변수는 각 변수의 구성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신뢰, 소득집단 만족도, 보행환경 만족도, 생활 안전도 등은 이산형 변수이지만 개략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속형 변수로 취급하여 기초통계량을 산출하였다.

[표 4-1] 개인수준 변수 기초통계량 - 연속형 변수

변수	레코드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46,547	2.1053	0.8469	2	1	5
이웃에 대한 신뢰	46,547	3.2119	0.8303	3	1	5
연령	46,547	43.3596	15.8592	44	15	94
소속집단에 대한 만족도	46,547	7.3263	1.6091	7	0	10
상대적 소득수준	46,547	0.0000	113.02	4.6154	-695.38	417.75
서울시민 자부심	46,547	6.9184	1.2822	7	0	10
현 주소 거주기간	46,547	88.3396	72.9456	64	2	876
사회활동 참여 건수	46,547	1.6834	1.2598	2	0	9
보행환경 만족도 - 거주지	46,547	3.4525	0.7235	4	1	5
보행환경 만족도 - 시내	46,547	3.3656	0.7828	3	1	5
보행환경 만족도 - 야간	46,547	3.2906	0.8384	3	1	5
생활 안전도 - 범죄, 폭력	46,547	2.2339	0.7249	2	1	4
생활 안전도 - 소음	46,547	2.1712	0.7059	2	1	4
생활 안전도 - 쓰레기 방치	46,547	2.3151	0.7599	2	1	4

[표 4-2] 개인수준 변수 기초통계량 - 이산형 변수

변수	항목	빈도	비율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2,535	48.41%	직업	관리자	1,138	2.44%
	여성	24,012	51.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11	3.68%
	합계	46,547	100.00%		사무 종사자	13,235	28.43%
거주 형태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16,141	34.68%		서비스 종사자	5,221	11.22%
	아파트	19,797	42.53%		판매 종사자	6,085	13.07%
	다세대주택	5,645	12.1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8	0.15%
	연립주택/빌라	4,906	10.5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969	4.23%
	기타(오피스텔, 상가내 거처 등)	58	0.1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13	1.96%
	합계	46,547	100.00%		단순노무 종사자	1,309	2.81%
점유 형태	자기집	26,900	57.79%		학생	5,460	11.73%
	전세	17,020	36.57%		주부	6,846	14.71%
	보증금 있는 월세	2,553	5.48%		무직	2,558	5.50%
	보증금 없는 월세	74	0.16%		기타	34	0.07%
	합계	46,547	100.00%		합계	46,547	100.00%
				종교	개신교	12,524	26.91%
학력	초등학교 졸업	1,091	2.34%		불교	4,586	9.85%
	중학교 졸업	4,667	10.03%		천주교	4,950	10.63%
	고등학교 졸업	16,879	36.26%		유교	104	0.22%
	대학 졸업	9,052	19.45%		기타	7	0.02%
	대학교 졸업	14,285	30.69%		없음	24,376	52.37%
	대학원 수료졸업	573	1.23%		합계	46,547	100.00%
	합계	46,547	100.00%	금전 도움 수혜 여부	가능	29,359	63.07%
출생 지	서울 출생	22,491	48.32%		불가능	17,188	36.93%
	경기, 인천 출생	10,344	22.22%		합계	46,547	100.00%
	비수도권	13,712	29.46%				
	합계	46,547	100.00%				

2) 지역수준 변수

지역수준의 변수로는 행정동별 평균 주택가격, 행정동 내 주택가격의 불평등(지니 계수), 평균 주택사용연수, 동 내 아파트 비율, 선진국 출신 외국인 비율,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비율, 유출인구 비율을 투입하였다. 행정동별 평균 주택가격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정보 상의 가격 정보를

행정동 단위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균 주택사용연수와 동 내 아파트 비율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주택사용 연수별 주택 수와 거주유형별 주택 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행정 동 단위로 집계하여 산출하였다.

외국인 비율의 경우 외국인의 출신 국가를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를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국가별 외국인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으로 집계하였다.

유출인구 비율은 행정동의 숫자 및 경계와 관련하여 이슈가 많은데 단일 연도의 유출인구 비율을 산출할 경우 해당 연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가능한 긴 시계열을 구축하여 변수화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의 행정동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왔는데 2009년 이후의 행정동은 비교적 그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009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의 유출인구와 거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유출비율을 산정하였다.

$$turnover = \frac{\sum_{i=2009}^{2015} (m_i/p_i)}{n}$$

turnover: 유출인구 비율

i: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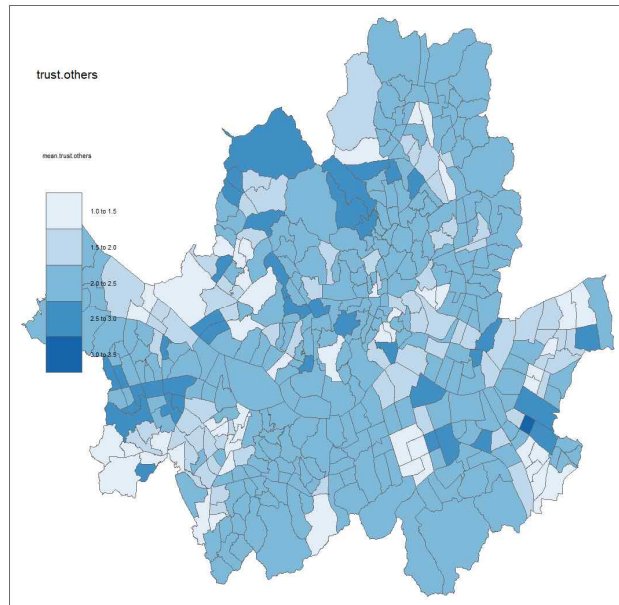
m_i: 연도별 유출인구

p_i: 연도별 행정동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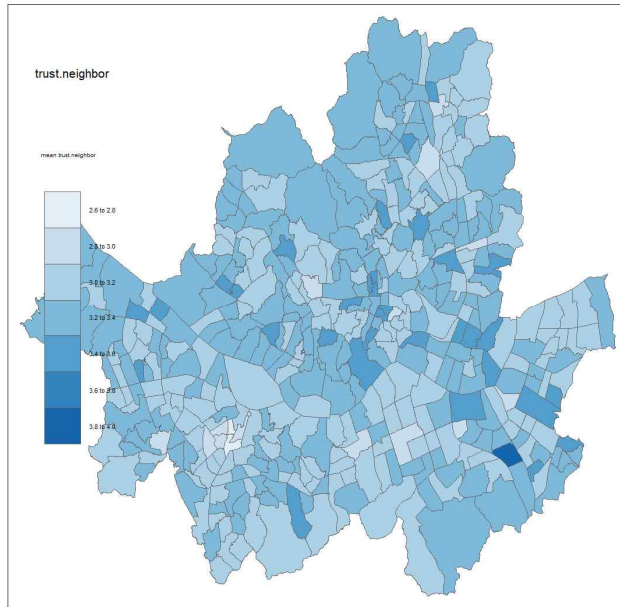
[표 4-3] 서울특별시 행정동 변동

연도	2006	2007	2008	2009~2011	2012~2015
행정동 수	522	507	438	424	423

3) 지역별 평균 사회적 신뢰 수준



[그림 4-1] 행정동별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평균



[그림 4-2] 행정동별 이웃에 대한 신뢰 평균

[표 4-4] 지역수준 변수 기초통계량 - 행정동 기준

변수	레코드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주택가격	415	28875.01	16542.27	23537.44	10009.58	128271.08
주택가격 불평등	415	0.2825	0.0761	0.2798	0.0643	0.5961
동 내 아파트 비율	415	0.5103	0.2956	0.5059	0.0000	1.0000
선진국 출신 외국인 비율	415	0.0064	0.0133	0.0024	0.0000	0.1254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비율	415	0.0237	0.0431	0.0096	0.0000	0.4046
유출인구 비율	415	0.1703	0.0291	0.1658	0.0167	0.3033
저렴주택 비율	415	0.1431	0.1221	0.1188	0.0000	0.6217

3. 외국인과의 접촉이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1) 무제약 모형(null model)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경우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적 특징이 개인의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수준 모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준 모형을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위계적 구조 설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 수준으로 설정된 종속변수의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 혹은 모형의 전체 분산 중 집단 간 차이로 인하여 설명될 수 있는 분산의 비율(ICC, intraclass correlation)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준 모형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²³⁾.

상기한 이유로 인하여 다수준 모형의 설계는 각 수준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각 수준의 오차항만을 고려하는 무제약 모형, 하위 수준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형, 상위 수준의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모형 순으로 모형을 점차 확장시키는 방법(bottom-up approach)이 선호된다.

외국인과의 접촉이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제약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ICC 값은 약 21.05%로 다수준 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일반적으로 ICC 값이 높을수록 다수준 모형 설정의 당위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에서는 최소 5% 이상의 ICC 값이 추정되었을 때 다수준 모형을 도입한다. 만약 이보다 작은 ICC 값이 추정될 경우에는 단일 수준의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희연·노승철, 2012)

[표 4-5] 무제약 모형 -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Number of obs	Number of groups	Obs per group		
		min	max	avg
46,547	415	35	279	112.2
Random-effects Parameters	Estimate	Std.Err.	95% Conf. Interval	
var(const)	.1505992	.0108618	.1307467	.1734661
var(Residual)	.5648044	.0037189	.5575623	.5721405
Level	ICC	Std.Err.	95% Conf. Interval	
admi	.2105095	.0120404	.187879	.2350768

2) 임의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 - 1수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1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거주유형, 점유유형,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종교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와 관련된 변수와 금전적 도움 수혜 여부, 소속집단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 건수, 출생지, 서울시민 자부심, 현 주소 거주기간 등의 요인도 분석 모형에 적용하였다.

가설 3과 관련하여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행환경 만족도 및 생활 안전도에 대한 인식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별과 연령의 경우 사회적 신뢰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거주유형은 단독주택을 참조변수로 하였을 때 연립주택/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유유형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월세 거주자의 경우 유의수준을 10%로 확대하였을 때 자가 거주자보다 낮은 신뢰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을 참조변수로 검토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직업의 경우 관리자에 비하여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학생, 무직 등의 신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 소득수준은 행정동 내 평균 소득 대비 개인의 소득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신뢰와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관련된 변수인 금전적 도움 수혜 여부, 소속집단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 건수의 경우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현 주소 거주기간과 출생지 변수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출신의 사람들의 신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주소 거주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것보다 해당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을수록 신뢰 수준 또한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적 특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자면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낮은 사람을 더 신뢰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근린환경과 사회적 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투입한 보행환경 만족도 및 생활 안전도 변수의 경우 보행환경은 거주지 보행환경을 제외한 시내 보행환경과 야간 보행환경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으며 생활 안전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근린환경의 무질서함보다 원활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6] 임의절편 모형 1수준 -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

Variables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성별(ref. 남성)		.0254221	.0202276	1.26	0.209	-.0142232	.0650675
연령		.0012317	.0008135	1.51	0.130	-.0003627	.0028261
거주유형 (ref. 단독)	아파트	-.0169991	.0245433	-0.69	0.489	-.0651032	.0311049
	다세대주택	-.0405994	.0309599	-1.31	0.190	-.1012797	.0200809
	연립주택/빌라	-.1233249	.0326242	-3.78	0.000	-.1872671	-.0593827
	기타	-.0826852	.2759696	-0.30	0.764	-.6235758	.4582053

점유유형 (ref. 자가)	전세	-.0025582	.0204743	-0.12	0.901	-.0426871	.0375707
	월세(보증금O)	-.0810738	.0431435	-1.88	0.060	-.1656336	.0034859
	월세(보증금X)	-.3963919	.2762012	-1.44	0.151	-.9377363	.1449526
교육수준 (ref.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045367	.0655961	-0.07	0.945	-.1331028	.1240293
	고등학교 졸업	.0931557	.0641446	1.45	0.146	-.0325653	.2188767
	대학 졸업	-.0490686	.0671319	-0.73	0.465	-.1806447	.0825075
	대학교 졸업	-.000353	.0656741	-0.01	0.996	-.1290719	.1283659
	대학원 졸업	-.1253263	.1046798	-1.20	0.231	-.3304949	.0798422
직업 (ref. 관리자)	전문가	.0879516	.0761433	1.16	0.248	-.0612864	.2371897
	사무 종사자	.1812644	.0616151	2.94	0.003	.0605011	.3020277
	서비스 종사자	.1445079	.0656381	2.20	0.028	.0158595	.2731563
	판매 종사자	.2463577	.0650908	3.78	0.000	.1187821	.3739333
	농림어업	.2707898	.2482206	1.09	0.275	-.2157137	.7572933
	기능원	.2275804	.0743516	3.06	0.002	.0818539	.373307
	장치 기계	.0593105	.088094	0.67	0.501	-.1133506	.2319716
	단순노무	.1378669	.0819577	1.68	0.093	-.0227673	.2985011
	학생	.1459625	.0737989	1.98	0.048	.0013193	.2906057
	주부	.0118405	.066822	0.18	0.859	-.1191282	.1428092
	무직	.2369705	.0741062	3.20	0.001	.091725	.382216
	기타	.3782119	.377466	1.00	0.316	-.3616079	1.118032
상대적 소득수준		.0002641	.0000903	2.92	0.003	.0000871	.0004412
종교 (ref. 개신교)	불교	-.1124703	.034996	-3.21	0.001	-.1810611	-.0438795
	천주교	-.0053313	.0332826	-0.16	0.873	-.0705641	.0599014
	유교	.5762668	.1967851	2.93	0.003	.190575	.9619585
	기타	.7504626	.6571539	1.14	0.253	-.5375354	2.038461
	없음	.047735	.0220532	2.16	0.030	.0045115	.0909585
금전적 도움 수혜 여부		.0523537	.0208024	2.52	0.012	.0115817	.0931258
소속집단 만족도		.0394629	.0062843	6.28	0.000	.0271459	.0517798
사회활동 참여 건수		.0359048	.0073944	4.86	0.000	.0214121	.0503976
출생지 (ref. 서울)	경기, 인천	-.0070427	.0241982	-0.29	0.771	-.0544703	.0403849
	비수도권	-.0517456	.0229628	-2.25	0.024	-.0967518	-.0067393
서울시민 자부심		.1449091	.0079475	18.23	0.000	.1293323	.1604859
현 주소 거주기간		.0107938	.009829	1.10	0.272	-.0084707	.0300583
보행환경 만족도 - 거주지		-.0162629	.0145703	-1.12	0.264	-.0448202	.0122943
보행환경 만족도 - 시내		.0423662	.0134784	3.14	0.002	.015949	.0687835
보행환경 만족도 - 야간		.359478	.0121829	29.51	0.000	.3356	.383356
생활 안전도 - 범죄, 폭력		-.0125901	.0138225	-0.91	0.362	-.0396816	.0145015
생활 안전도 - 소음		.01168	.0137214	0.85	0.395	-.0152135	.0385735
생활 안전도 - 쓰레기 방치		-.0104104	.0129303	-0.81	0.421	-.0357534	.0149325
/cut1		1.570884	.1511153	10.40	0.000	1.274703	1.867064
/cut2		3.81654	.1520537	25.10	0.000	3.51852	4.114559
/cut3		6.407293	.1543017	41.52	0.000	6.104867	6.709719
/cut4		9.050366	.1732089	52.25	0.000	8.710882	9.389849
Log likelihood		-50,305.097					
Wald chi2(45)		1,615.62		Prob > chi2		0.0000	
LR test vs. ologit model: chibar2(01) = 9,603.52 Prob >= chibar2 = 0.0000							

* 음영처리한 변수는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3) 임의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 - 2수준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한 지역의 단위를 행정동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개인 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한 임의절편 모형에 행정동 수준의 변수를 추가한 결과 Log likelihood와 Wald chi2 값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지역 단위 변수의 투입으로 모형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수준 변수의 유의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변수로 투입한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면 경제적 계층의 혼잡을 대변하는 변수로 투입된 주택가격 불평등(지니 계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행정동 내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비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 경제적 계층의 차이보다 민족, 언어, 문화, 종교 등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질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였을 때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신뢰에 외국인의 비율이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비율은 사회적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비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류사회의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국인의 유출로 인한 기존 커뮤니티의 해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저하는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개인의 직업, 종교 등 주거지 이외의 영역에서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점차 보편적인 거주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파트의 비율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파트의 경우 타 거주유형에 비하여 높은 인구밀도 수준을 가지는데 주거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상호작용하여야 하는 타인의 수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감정적 과부하(sensory

overload) 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Churchman, 1999; Freeman, 2001)을 참고로 할 때 지역 내 아파트의 증가는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²⁴⁾ 분석 결과 아파트 비율이 높은 행정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적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임의절편 모형 2수준 -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Variables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성별(ref. 남성)		.0253823	.0202271	1.25	0.210	-.014262	.0650267
연령		.0012358	.0008134	1.52	0.129	-.0003585	.0028301
거주유형 (ref. 단독)	아파트	-.0130295	.0246967	-0.53	0.598	-.0614341	.0353751
	다세대주택	-.0425449	.0309684	-1.37	0.169	-.1032419	.0181521
	연립주택/빌라	-.1223447	.0326304	-3.75	0.000	-.186299	-.0583903
	기타	-.0781228	.2760004	-0.28	0.777	-.6190736	.4628281
점유유형 (ref. 자가)	전세	-.0024244	.0204732	-0.12	0.906	-.0425511	.0377024
	월세(보증금O)	-.0807047	.043142	-1.87	0.061	-.1652614	.003852
	월세(보증금X)	-.3871634	.2761257	-1.40	0.161	-.9283598	.154033
교육수준 (ref.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048051	.0655962	-0.07	0.942	-.1333713	.123761
	고등학교 졸업	.0928239	.0641437	1.45	0.148	-.0328955	.2185433
	대학 졸업	-.049299	.0671313	-0.73	0.463	-.180874	.082276
	대학교 졸업	-.000581	.0656742	-0.01	0.993	-.1293002	.1281382
	대학원 졸업	-.1250399	.1046801	-1.19	0.232	-.3302093	.0801294
직업 (ref. 관리자)	전문가	.0881113	.0761386	1.16	0.247	-.0611176	.2373402
	사무 종사자	.1817185	.0616123	2.95	0.003	.0609606	.3024765
	서비스 종사자	.1453083	.0656349	2.21	0.027	.0166663	.2739504
	판매 종사자	.2472289	.0650888	3.80	0.000	.1196571	.3748007
	농림어업	.2708108	.2481562	1.09	0.275	-.2155664	.757188
	기능원	.2281461	.0743487	3.07	0.002	.0824252	.373867
	장치 기계	.0599938	.0880886	0.68	0.496	-.1126567	.2326442
	단순노무	.1386198	.0819568	1.69	0.091	-.0220126	.2992522
	학생	.1466808	.0737955	1.99	0.047	.0020444	.2913173
	주부	.0124122	.0668188	0.19	0.853	-.1185503	.1433747
	무직	.2376954	.0741037	3.21	0.001	.0924548	.382936
	기타	.3756336	.3772114	1.00	0.319	-.3636872	1.114954
상대적 소득수준		.000264	.0000903	2.92	0.003	.000087	.000441
종교 (ref. 개신교)	불교	-.1127086	.0349944	-3.22	0.001	-.1812963	-.0441209
	천주교	-.0053928	.0332822	-0.16	0.871	-.0706248	.0598392
	유교	.575968	.1967903	2.93	0.003	.1902661	.96167

24)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과 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하는 빗장 커뮤니티(gated community)를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아파트 비율의 증가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기타	.7525817	.6572171	1.15	0.252	-.5355402	2.040704
	없음	.0477289	.0220534	2.16	0.030	.004505	.0909528
금전적 도움 수혜 여부		.0520117	.0207999	2.50	0.012	.0112446	.0927787
소속집단 만족도		.0394544	.0062844	6.28	0.000	.0271372	.0517715
사회활동 참여 건수		.0358979	.0073942	4.85	0.000	.0214055	.0503904
출생지	경기, 인천	-.0070959	.0241981	-0.29	0.769	-.0545234	.0403315
(ref. 서울)	비수도권	-.0515605	.0229626	-2.25	0.025	-.0965663	-.0065547
서울시민 자부심		.1448958	.007947	18.23	0.000	.12932	.1604717
현 주소 거주기간		.0108386	.0098291	1.10	0.270	-.0084262	.0301033
보행환경 만족도 - 거주지		-.0161305	.01457	-1.11	0.268	-.0446872	.0124261
보행환경 만족도 - 시내		.0423493	.013478	3.14	0.002	.015933	.0687656
보행환경 만족도 - 야간		.3593249	.0121816	29.50	0.000	.3354495	.3832004
생활 안전도 - 범죄, 폭력		-.012832	.0138226	-0.93	0.353	-.0399239	.0142598
생활 안전도 - 소음		.0119678	.0137212	0.87	0.383	-.0149253	.038861
생활 안전도 - 쓰레기 방치		-.01036	.0129307	-0.80	0.423	-.0357037	.0149837
지역변수 (행정동)	주택가격불평등	-.9461123	1.040469	-0.91	0.363	-2.985395	1.09317
	평균주택가격	.0805058	.065422	1.23	0.218	-.047719	.2087306
	아파트 비율	-.7956263	.2628445	-3.03	0.002	-1.310792	-.2804606
	선진국 비율	.7860026	4.39374	0.18	0.858	-7.825569	9.397575
	개도국 비율	-3.836289	1.286306	-2.98	0.003	-6.357402	-1.315176
	유출인구 비율	-2.032433	2.099023	-0.97	0.333	-6.146443	2.081577
빈곤주택 비율		.3132494	.6049734	0.52	0.605	-.8724767	1.498976
/cut1		.5185338	.5020034	1.03	0.302	-.4653749	1.502442
/cut2		2.76423	.5022015	5.50	0.000	1.779933	3.748527
/cut3		5.355085	.502819	10.65	0.000	4.369578	6.340592
/cut4		7.998188	.5089265	15.72	0.000	7.00071	8.995665
Log likelihood		-50,297.451					
Wald chi2(51)		1,632.37		Prob > chi2		0.0000	
LR test vs. ologit model: chibar2(01) = 9,297.98 Prob >= chibar2 = 0.0000							

* 음영처리한 변수는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4. 외국인과의 접촉이 이웃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1) 무제약 모형(null model)

외국인과의 접촉이 이웃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앞서 언급한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 과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무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다수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검토 결과 ICC는 약 1.34% 수준으로 전체 분산 대비 매우 적은 비율의 분산이 집단 차이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어 이웃에 대한 신뢰의 경우에는 행정동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ICC가 5% 미만이라도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다수준 모형을 적

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형과의 일관성 및 지역적 변인이 투입되는 모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표 4-8] 무제약 모형 - 이웃에 대한 신뢰

Number of obs	Number of groups	Obs per group		
		min	max	avg
46,547	415	35	279	112.2
Random-effects Parameters	Estimate	Std.Err.	95% Conf. Interval	
var(const)	.0092617	.0011177	.0073108	.0117332
var(Residual)	.6805034	.0044813	.6717767	.6893435
Level	ICC	Std.Err.	95% Conf. Interval	
admi	.0134273	.0016047	.0106197	.0169645

2) 임의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 - 1수준

이웃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무제약 모형에 개인 수준의 변수를 더한 임의절편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와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 응답자의 직업별로 신뢰 수준이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나 이웃에 대한 신뢰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전적 도움 수혜 여부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 서울시민 여부, 현 주소 거주기간 등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변수의 유의성 또한 확보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를 의미하는 사회활동 참여 건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와 마찬가지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환경과 관련하여 생활 안전도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모형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보행환경 만족도의 경우 시내,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만이 유의하였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모형과는 달리 거주지 보행환경 만족도의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전반을 평가하자면 이웃에 대한 신뢰의 경우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는 달리 직업이나 종교, 소속집단 만족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거지 외부에서의 경제적 활동, 종교 활동, 사회적 활동의 영향력보다 주거지 인근에서의 대면접촉경험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다수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간의 모형 적합성에 대한 LR Test 수행 결과 다수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임의절편 모형 1수준 - 이웃에 대한 신뢰

Variables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성별(ref. 남성)		.0182115	.01947	0.94	0.350	-.0199489	.056372
연령		.0017399	.0007811	2.23	0.026	.000209	.0032708
거주유형 (ref. 단독)	아파트	.019484	.0219279	0.89	0.374	-.0234938	.0624618
	다세대주택	.0085419	.029453	0.29	0.772	-.0491849	.0662688
	연립주택/빌라	-.0117499	.0309034	-0.38	0.704	-.0723195	.0488198
	기타	-.4445941	.2434134	-1.83	0.068	-.9216755	.0324874
점유유형 (ref. 자가)	전세	-.0273413	.019471	-1.40	0.160	-.0655037	.0108211
	월세(보증금O)	-.044718	.0402076	-1.11	0.266	-.1235235	.0340875
	월세(보증금X)	-.1889378	.2199699	-0.86	0.390	-.6200709	.2421953
교육수준 (ref.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41317	.063545	0.65	0.516	-.0832289	.1658629
	고등학교 졸업	.0307924	.0619832	0.50	0.619	-.0906925	.1522773
	대학 졸업	.0501347	.0647367	0.77	0.439	-.0767469	.1770162
	대학교 졸업	.0299385	.0634282	0.47	0.637	-.0943785	.1542554
	대학원 졸업	-.0053696	.1006559	-0.05	0.957	-.2026517	.1919124
직업 (ref. 관리자)	전문가	-.0340299	.0712655	-0.48	0.633	-.1737076	.1056479
	사무 종사자	.0156586	.0576383	0.27	0.786	-.0973104	.1286276
	서비스 종사자	-.0042306	.0615536	-0.07	0.945	-.1248734	.1164122
	판매 종사자	-.012745	.0609648	-0.21	0.834	-.1322339	.1067439
	농림어업	.251221	.234414	1.07	0.284	-.208222	.7106639
	기능원	.0571974	.0698804	0.82	0.413	-.0797657	.1941605
	장치 기계	.0111847	.0835742	0.13	0.894	-.1526176	.1749871
	단순노무	.0440155	.0772688	0.57	0.569	-.1074286	.1954595
	학생	-.0374238	.0695813	-0.54	0.591	-.1738006	.0989529
	주부	-.0289131	.0625877	-0.46	0.644	-.1515827	.0937565
상대적 소득수준	무직	.0833312	.0700479	1.19	0.234	-.0539601	.2206225
	기타	-.0078161	.325702	-0.02	0.981	-.6461804	.6305482
	상대적 소득수준	.0000409	.0000867	0.47	0.638	-.0001292	.0002109
종교 (ref. 개신교)	불교	.0058868	.033083	0.18	0.859	-.0589547	.0707283
	천주교	.0204504	.0316854	0.65	0.519	-.0416518	.0825526
	유교	-.2658123	.1879668	-1.41	0.157	-.6342204	.1025958
	기타	.2944989	.6792104	0.43	0.665	-1.036729	1.625727

	없음	.0035057	.0209778	0.17	0.867	-.0376101	.0446215
금전적 도움 수혜 여부		-.0133821	.0191542	-0.70	0.485	-.0509236	.0241594
소속집단 만족도		.0013743	.0058123	0.24	0.813	-.0100177	.0127662
사회활동 참여 건수		.055347	.0071347	7.76	0.000	.0413633	.0693307
출생지 (ref. 서울)	경기, 인천	.016848	.0230081	0.73	0.464	-.028247	.061943
	비수도권	.0102648	.0219139	0.47	0.639	-.0326857	.0532153
서울시민 자부심		.0053202	.0073015	0.73	0.466	-.0089904	.0196309
현 주소 거주기간		.0046965	.0093624	0.50	0.616	-.0136535	.0230465
보행환경 만족도 - 거주지		.157011	.0142316	11.03	0.000	.1291175	.1849045
보행환경 만족도 - 시내		.1504326	.0131378	11.45	0.000	.1246831	.1761821
보행환경 만족도 - 야간		.0240851	.0110679	2.18	0.030	.0023923	.0457778
생활 안전도 - 범죄, 폭력		-.0006785	.0132037	-0.05	0.959	-.0265572	.0252002
생활 안전도 - 소음		.000204	.0131052	0.02	0.988	-.0254817	.0258898
생활 안전도 - 쓰레기 방치		.0019846	.0123681	0.16	0.873	-.0222564	.0262255
/cut1		-2.455403	.1365824	-17.98	0.000	-2.7231	-2.187707
/cut2		-.0755945	.1335631	-0.57	0.571	-.3373733	.1861843
/cut3		1.808249	.1338233	13.51	0.000	1.54596	2.070537
/cut4		5.068571	.1370845	36.97	0.000	4.79989	5.337252
Log likelihood							-55,992.568
Wald chi2(45)		658.68		Prob > chi2			0.0000
LR test vs. ologit model: chibar2(01) = 220.67				Prob >= chibar2 = 0.0000			

* 음영처리한 변수는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3) 임의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 - 2수준

행정동 수준의 변수를 투입한 이웃에 대한 신뢰 모형에서의 개인수준 변수는 1수준 모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변수의 경우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 모형과 동일한 변수를 투입하였는데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 모형에서 아파트 비율(-),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비율(-)이 유의수준 5% 기준으로 유의미하였던 것과는 달리 유의수준 10% 기준으로 주택가격 불평등과 평균 주택가격, 그리고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비율이 이웃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비율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비율의 경우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 모형에서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외국인과의 접촉에 대하여 살펴보면 분류별 외국인 비율의 이웃에 대한 신뢰에 대한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가설 1.1.과 가설 1.2.를 만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웃에 대한 신뢰는 선진국 출신 외국인 비율로 인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설 설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 혹은 신뢰 수준을 보유한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이 내국인 커뮤니티에 연착륙하거나 이와는 별개로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긍정적 편견, 선입견으로 인한 내국인의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와는 달리 이웃에 대한 신뢰의 경우 유출인구 비율에 의하여 신뢰가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설 설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거주민의 이탈로 인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및 신뢰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0] 임의절편 모형 2수준 - 이웃에 대한 신뢰

Variables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성별(ref. 남성)		.0174563	.0194675	0.90	0.370	-.0206993	.055612
연령		.0017326	.0007809	2.22	0.026	.0002021	.0032631
거주유형 (ref. 단독)	아파트	.026974	.023573	1.14	0.253	-.0192281	.0731762
	다세대주택	.0065249	.0295564	0.22	0.825	-.0514047	.0644544
	연립주택/빌라	-.0094996	.0309572	-0.31	0.759	-.0701746	.0511754
	기타	-.4402735	.2433711	-1.81	0.070	-.9172721	.0367252
점유유형 (ref. 자가)	전세	-.0275343	.0194568	-1.42	0.157	-.065669	.0106003
	월세(보증금O)	-.0436056	.0401801	-1.09	0.278	-.1223571	.0351458
	월세(보증금X)	-.1770661	.2199112	-0.81	0.421	-.6080842	.2539519
교육수준 (ref.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394456	.0635421	0.62	0.535	-.0850946	.1639858
	고등학교 졸업	.0293085	.0619769	0.47	0.636	-.0921639	.1507809
	대학 졸업	.0489111	.0647383	0.76	0.450	-.0779737	.1757959
	대학교 졸업	.0302478	.063434	0.48	0.633	-.0940805	.154576
직업 (ref. 관리자)	대학원 졸업	-.0014745	.1006738	-0.01	0.988	-.1987915	.1958425
	전문가	-.0356201	.0712546	-0.50	0.617	-.1752765	.1040363
	사무 종사자	.0129167	.057635	0.22	0.823	-.1000458	.1258792
	서비스 종사자	-.0053406	.0615453	-0.09	0.931	-.1259672	.115286
	판매 종사자	-.0152899	.0609662	-0.25	0.802	-.1347814	.1042016
	농림어업	.2549638	.2342557	1.09	0.276	-.2041689	.7140966
	기능원	.0539644	.0698809	0.77	0.440	-.0829996	.1909285
	장치 기계	.0102479	.0835619	0.12	0.902	-.1535304	.1740262
	단순노무	.0422326	.0772599	0.55	0.585	-.1091942	.1936593
	학생	-.0399972	.069582	-0.57	0.565	-.1763754	.096381
	주부	-.0299516	.0625794	-0.48	0.632	-.1526049	.0927017

	무직	.0824938	.0700448	1.18	0.239	-.0547914	.2197791	
	기타	.0045316	.3256676	0.01	0.989	-.6337651	.6428282	
상대적 소득수준		.0000414	.0000868	0.48	0.633	-.0001287	.0002114	
종교 (ref. 개신교)	불교	.0040205	.0330713	0.12	0.903	-.0607981	.0688391	
	천주교	.0214661	.0316829	0.68	0.498	-.0406311	.0835634	
	유교	-.2678746	.1879826	-1.42	0.154	-.6363137	.1005644	
	기타	.3178978	.6789477	0.47	0.640	-1.012815	1.648611	
	없음	.0030887	.020978	0.15	0.883	-.0380275	.0442048	
금전적 도움 수혜 여부		-.0139186	.0191235	-0.73	0.467	-.0514	.0235629	
소속집단 만족도		.0017279	.0058092	0.30	0.766	-.0096579	.0131137	
사회활동 참여 건수		.0549966	.0071343	7.71	0.000	.0410137	.0689795	
출생지 (ref. 서울)	경기, 인천	.0158057	.0230095	0.69	0.492	-.0292921	.0609036	
	비수도권	.0106005	.021909	0.48	0.628	-.0323404	.0535414	
서울시민 자부심		.0051816	.0072929	0.71	0.477	-.0091122	.0194754	
현 주소 거주기간		.0051791	.0093612	0.55	0.580	-.0131685	.0235267	
보행환경 만족도 - 거주지		.1571105	.0142316	11.04	0.000	.129217	.1850039	
보행환경 만족도 - 시내		.1505957	.0131365	11.46	0.000	.1248487	.1763428	
보행환경 만족도 - 야간		.0235455	.0110515	2.13	0.033	.0018849	.045206	
생활 안전도 - 범죄, 폭력		-.0006426	.0132048	-0.05	0.961	-.0265235	.0252383	
생활 안전도 - 소음		.0010483	.0131053	0.08	0.936	-.0246377	.0267342	
생활 안전도 - 쓰레기 방치		.000809	.0123724	0.07	0.948	-.0234404	.0250585	
지역변수 (행정동)	주택가격불평등	-.1494813	.2817545	-0.53	0.596	-.70171	.4027474	
	평균주택가격	-.0340804	.0180129	-1.89	0.058	-.0693851	.0012243	
	아파트 비율	-.1289819	.0713825	-1.81	0.071	-.268889	.0109253	
	선진국 비율	3.493987	1.207221	2.89	0.004	1.127877	5.860097	
	개도국 비율	-.8986005	.3488987	-2.58	0.010	-1.582429	-.2147716	
	유출인구 비율	-1.368819	.5664083	-2.42	0.016	-2.478959	-.2586792	
	빈곤주택 비율	-.1839141	.1606717	-1.14	0.252	-.4988247	.1309966	
/cut1		-2.825159	.1858243	-15.20	0.000	-3.189368	-2.46095	
/cut2		-.4454745	.1835875	-2.43	0.015	-.8052994	-.0856497	
/cut3		1.438398	.1836893	7.83	0.000	1.078373	1.798422	
/cut4		4.698831	.1859812	25.27	0.000	4.334315	5.063348	
Log likelihood								-55,981.01
Wald chi2(51)		682.00		Prob > chi2		0.0000		
LR test vs. ologit model: chibar2(01) = 195.82				Prob >= chibar2 = 0.0000				

* 음영처리한 변수는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제 2 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

외국인과의 접촉 모형을 통하여 볼 때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유입은 그들이 가진 내국인과의 이질성이나 내국인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의 유입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외국인을 이질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을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과 함께 경제활동을 영위해나가는 사람들의 경우 외국인들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²⁵⁾.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이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고 그들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감소한다면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진정한 다문화 수용, 사회적 통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선화(2007)의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과 자주 접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하여 도출된 정성적 연구결과이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데이터 및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²⁶⁾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²⁷⁾과 관련된 설문조사 항목을 서울서베이에서 추출하였으며 이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 나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나는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5) 안산시 이주노동자 사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이선화(2007)에 의하면 외국인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 한국인들은 이들에 대한 이질감, 공포감이 감소하고 나아가 이들을 자신과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인들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던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같은 곤경에 처하였을 때 이들을 보호하고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맞서는 등의 이타적인 행동 또한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26) 이는 이질적 집단이 상호 간의 접촉을 통하여 오해와 편견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접촉 가설과 동일한 맥락이다.

27)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라는 문항 하에 세부 문항으로 외국인을 친구로, 이웃으로, 결혼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묻고 있다.

[표 4-11]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 기초통계량

변수	레코드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외국인 - 친구	46,547	3.4699	0.8986	4	1	5
외국인 - 이웃	46,547	3.5244	0.9186	4	1	5
외국인 - 가족	46,547	3.2486	0.8819	3	1	5

측정 항목에 대한 답변의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계수행렬을 구해보면 각 항목 간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측정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구한 결과 Raw Alpha 값이 0.76으로 세 가지 설문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자분석을 수행하여 각 설문의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세 가지 설문을 하나의 단일 변수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류별 외국인 비율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국인과의 접촉 모형과 동일하게 다수준 모형을 적용²⁸⁾하였으며 변환된 변수의 경우 순서형이 아닌 연속형 변수이므로 다수준 선형회귀모형을 구축·분석하였다.

[표 4-12]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 상관계수행렬

	외국인 - 친구	외국인 - 이웃	외국인 - 가족
외국인 - 친구	1.0000		
외국인 - 이웃	0.6390	1.0000	
외국인 - 가족	0.4824	0.4135	1.0000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모형을 살펴보면 개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28) ICC 값은 3.98%로 5%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였다.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일반적 교육수준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거주유형, 점유유형, 상대적 소득수준과 직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수준의 변수로써 행정동 평균 주택가격 또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본 분석의 주요 분석 대상인 지역 내 선진국 출신 외국인 비율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비율의 경우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선진국 출신 외국인 비율의 경우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비율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3] 임의절편 모형 2수준 -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Variables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성별(ref. 남성)		.0061331	.0163074	0.38	0.707	-.0258287	.038095
연령		-.0116319	.0006406	-18.16	0.000	-.0128874	-.0103764
거주유형 (ref. 단독)	아파트	.0253328	.0194318	1.30	0.192	-.0127529	.0634185
	다세대주택	.006543	.0249798	0.26	0.793	-.0424164	.0555025
	연립주택/빌라	.0396252	.0261107	1.52	0.129	-.0115507	.0908012
	기타	-.1458501	.2099809	-0.69	0.487	-.5574051	.2657049
점유유형 (ref. 자가)	전세	-.0067862	.0162825	-0.42	0.677	-.0386994	.025127
	월세(보증금O)	-.0246278	.0339721	-0.72	0.468	-.0912119	.0419563
	월세(보증금X)	.1850478	.185355	1.00	0.318	-.1782414	.5483369
교육수준 (ref.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523904	.0530663	0.99	0.324	-.0516177	.1563985
	고등학교 졸업	.1523042	.0517078	2.95	0.003	.0509587	.2536497
	대학 졸업	.1537426	.0539793	2.85	0.004	.0479451	.25954
	대학교 졸업	.1345634	.0528303	2.55	0.011	.031018	.2381088
	대학원 졸업	.0575222	.0847787	0.68	0.497	-.1086411	.2236854
직업 (ref. 관리자)	전문가	.004334	.0605071	0.07	0.943	-.1142576	.1229257
	사무 종사자	.0436195	.0490309	0.89	0.374	-.0524794	.1397184
	서비스 종사자	.0127875	.052289	0.24	0.807	-.0896971	.1152721
	판매 종사자	-.0317004	.051806	-0.61	0.541	-.1332382	.0698374
	농림어업	-.2572747	.1969689	-1.31	0.191	-.6433266	.1287772
	기능원	-.0075648	.0593154	-0.13	0.899	-.1238209	.1086913
	장치 기계	.0665875	.0704756	0.94	0.345	-.0715422	.2047172
	단순노무	.0452139	.065308	0.69	0.489	-.0827873	.1732152

	학생	.0471968	.0588107	0.80	0.422	-.06807	.1624636
	주부	.0164147	.0531674	0.31	0.758	-.0877916	.120621
	무직	.0903624	.0591876	1.53	0.127	-.0256432	.2063679
	기타	.0191392	.2757243	0.07	0.945	-.5212706	.559549
상대적 소득수준		.0000193	.0000724	0.27	0.790	-.0001226	.0001612
종교 (ref. 개신교)	불교	.000153	.0279024	0.01	0.996	-.0545348	.0548407
	천주교	.0123358	.0266564	0.46	0.644	-.0399098	.0645814
	유교	-.0675572	.1558137	-0.43	0.665	-.3729465	.2378321
	기타	-.9564391	.5943719	-1.61	0.108	-2.121387	.2085085
지역변수 (행정동)	없음	.0029081	.0177576	0.16	0.870	-.0318962	.0377123
	평균주택가격	-.000219	.0170837	-0.01	0.990	-.0337023	.0332644
	선진국 비율	-6.074223	1.388153	-4.38	0.000	-8.794954	-3.353493
	개도국 비율	.780822	.4234378	1.84	0.065	-.0491009	1.610745
constant		7.712977	.084532	91.24	0.000	7.547298	7.878657
Log likelihood		-87,124.855					
Wald chi2(35)		685.30		Prob > chi2		0.0000	
LR test vs. ologit model: chibar2(01) = 1,147.94				Prob >= chibar2 = 0.0000			

* 음영처리한 변수는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 요약

1) 외국인과의 접촉과 사회적 신뢰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의 정착이 지역 사회의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가설은 오랜 기간 단일 민족성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의 경우 내국인과 이질적인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기존 사회적 네트워크의 손실 및 사회적 신뢰의 저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논의의 전개 과정에 있어 내국인의 각 인종, 민족, 출신 국가 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과는 별개로 각각의 외국인들의 행태나 사회적 신뢰 수준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외국인들의 출신국가, 소득 수준, 거주지 선택요인, 거주유형, 그리고 공간적 분포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IMF의 Economic Outlook 2015를 기준으로 선진국 출신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별 외국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내국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첫 번째로 외국인 분류별 소득 수준 차이와 이로 인한 외국인 자체의 사회적 신뢰 수준 차이가 존재하며 이들을 수용하는 내국인들의 반응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편견 혹은 선입견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외국인 분류별로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유입된 등록외국인은 52,743명이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유입된 등록 외국인은 222,214명으로 그 규모 상으로도 약 4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이 각자의 거주 혹은 방문 목적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군집²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의 집단 규모와 내국인과의 공간적 단절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작용의 감소 및 상호 간 신뢰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출신 외국인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서베이 상에서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는 항목 중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해당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유입과 관련하여 지역 내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유출과 이로 인한 기존 커뮤니티의 해체 및 사회적 신뢰 저하 현상 또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분류별 외국인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나타났는데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비율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모형과 ‘이웃에 대한 신뢰’ 모형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 출신 외국인 비율의 경우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이웃에 대한 신뢰’ 모형에서는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계층의 혼합과 사회적 신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류별 외국인의 신뢰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이 그들 고유의 민족성, 언어, 문화, 종교 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그들의 경

29) 이러한 경향은 서울서베이(외국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박세호·정소양, 2010; 정지은 외, 2011; 최은진·김의준, 2011; 하성규 외, 2011; 이진영·남진, 2012). 이와 관련하여 이민자들이 지리적 군집을 형성하여 거주할 경우 원주민과의 접촉이 감소하고 내집단 구성원 간의 접촉과 결속이 증진된다는 연구결과(Vervoort et al., 2011; Vervoort, 2012)가 존재한다.

제적 능력에 의한 것인지를 분류해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신뢰에 대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부정적 영향력이 단순히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혼합과 관련된 문제로 등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사회적 혼합의 수준을 대변하는 주택가격의 불평등 정도(지니 계수)를 변수로 투입하여 해당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제하였을 때 동 내 외국인 비율 변수의 유의성 또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혼합 변수의 유의성은 두 모형 모두에서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의 반영 이후에도 분류별 외국인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외국인들의 경제적 지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 문화, 종교 등의 비경제적 요소가 주류 사회에 이질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3) 근린환경과 사회적 신뢰

외국인과의 접촉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거주지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주지 선택은 주택가격, 근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외국인 거주지 선택으로 결정되는 외국인 접촉 비율과 주택가격, 그리고 주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린환경이 우수한 경우 사람들의 보행활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존재하므로 근린환경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논의 또한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린환경의 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서베이 상에서 조사하고 있는 보행환경 만족도(거주지, 시내, 야간)와 생활 안전도(범죄·폭력, 소음, 쓰레기 방치)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 중 시내 보행환경 만족도

와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는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 모형에서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의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도시의 안전(safety)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의 경우 사회구성원 간의 거래비용의 저감과 효율적 기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신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정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알아보고자 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외국인 비율의 영향력을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외국인 거주지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첫 번째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동 내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분석 모형의 결과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에서의 경험에서 유추할 때 이러한 외국인 집단의 군집과 이로 인한 주류 사회와의 단절은 내국인을 지속적으로 밀어내고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내국인의 통제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비교적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외국인으로 구성된 지역이 게토나 슬럼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의 측면과 도시관리 혹은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의 비율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내국인 유출과 이로 인한 내국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약화 문제 또한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실제 모형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이웃에 대한 신뢰’의 경우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는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와 달리 지역 단위의 사회적 안정성³⁰⁾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

30)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으로 교육과 어린이의 발전, 안전하고 유익한

며 이러한 지역 사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관심 및 경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내국인의 유출이 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 내 거주유형 중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신뢰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아파트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아파트라는 거주유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는 각 세대 간 면적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며 단편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오히려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신뢰 수준을 저해시킬 것으로 추측한다.

첫째로 지나치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정적 과부하와 이로 인한 접촉의 꺼림이다. 거주유형 중 가장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그 목적 자체가 동일한 지역에 최대한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타 거주유형 대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인구밀도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며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활동을 꺼리게 됨으로써 신뢰가 저해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구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타 주거유형과는 달리 아파트는 개별 주택의 현관문 이외에도 주거동 내 현관, 그리고 단지 출입구 등 외부와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영위할 수 있는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권역의 축소는 아파트 내 거주민들이 외부인들과는 접촉하지 않으려하는 성향으로 발전하며 이로 인한 빗장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만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기한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자면 아파트의 경우 지나치게 높

동네, 경제적 번영, 건강과 행복, 민주주의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은 인구밀도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계 형성의 피로감과 외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는 주거밀도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제재보다 지역 단위 구성원들이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외부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개인적 요인을 제외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근린환경, 특히 보행환경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신뢰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근린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보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하여 구성원 간의 접촉과 사회적 신뢰가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생활 안전도의 측면에서 거주지의 소음, 쓰레기 방치, 범죄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한 불안감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는 보행환경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상기한 근린환경의 무질서함이 보행 활동 혹은 보행환경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수기 외, 2016).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특성, 시공간적 분포에 대하여 탐구하였으며 이들이 주류 사회와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신뢰 수준 변동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논문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문헌의 경우 단순히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 혹은 외국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내국인의 인식 변화 등 단편적인 현상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반하여 외국인과의 접촉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현상을 연계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의 경우 단순히 외국인들을 체류자격 혹은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서울서베이(외국인) 상에서 나타난 국적별 외국인의 특징과 이들의 공간적 분포를 근거로 외국인을 크게 선진국 출신 외국인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으로 분류함으로써 큰 틀에서 외국인의 유형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외국인 분류를 통하여 이들 각각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하였으며 결과론적으로 분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 단순히 그들의 체류자격,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등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제시하였지만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와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혹은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발견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술적 기여도와 함께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4만 6천 명의 시민의 사회적 신뢰 수준 및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

인에 대하여 탐구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고 분석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 분석 자료의 한계

본 연구의 경우 서울특별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외국인과 접촉이 개인의 사회적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로써 행정동 단위의 신뢰 수준에 대한 시계열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유입되어 다양성이 증가하고 각 민족 간의 상호작용, 학습, 재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러한 외국인의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저하 현상은 그 영향력이 변동될 여지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³¹⁾.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정의함에 있어 자료 구득의 한계로 부득이하게 등록외국인만을 외국인으로 한정할 바 있으나 실제 사회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이질성은 거소신고동포, 단기체류외국인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외국인과 접촉 혹은 정보 전파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를 갖는다.

2) 외국인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외국인) 상에 기재된 설문항목과 각 국적별 혹은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기준으로 대분류로써 외국인을 두 가지 분류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의 분류는 분석 상

31)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 측면에서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으나 해당 분석이 신뢰 변동에 대한 해석과 등치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의 용의성 관점에서는 적합하지만 해당 외국인 고유의 속성을 상당 부분 무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추후 외국인의 분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내국인 이주로 사회적 신뢰 손상의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내국인의 유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외국인과의 접촉과는 별개로 내국인 사회의 네트워크 약화 및 사회적 신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도별·행정동별 한국인·외국인 인구 수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내국인의 유출이 전적으로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실제 외국인의 내국인에 대한 구축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구득 가능한 행정동 단위의 외국인 인구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며 외국인의 주소지에 대한 시계열별, 지점별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유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4) 외국인 유입 변수의 일방성

외국인 유입이라는 외부적 현상에 의한 내국인의 사회적 신뢰 변동에 알아본 본 연구는 주요 분석 대상이 내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외국인은 내국인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여 그들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제고되거나 내국인들로부터 차별·배제되고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 수준이 저하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다시 내국인과의 교류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은 단순히 주류 사회에 단편적으로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만 적용되어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참 고 문 헌

1. 김승남 외, 2011. “택지개발이 지역주민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 근린수준 사회자본과 일반적 사회자본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71: 47-68.
2. 김승남 · 김재홍, 2013. “근린의 사회적 혼합 수준과 거주민의 사회자본 형성 및 도움수혜 경험의 실증적 관계”, 「국토연구」, 76: 93-112.
3. 김준형 외, 2005. “임대주택 사회적 혼합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5): 153-163.
4. 박관민 외, 2009.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증연구: 용인시 동백지구를 사례로”, 「도시행정학보」, 22(3): 107-131.
5. 박선희 · 박병현, 2012. “근린지역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9(2): 85-123.
6. 박윤환, 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103-122.
7. 서종녀 · 하성규, 2009. “공동주택 커뮤니티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 분석”, 「국토계획」, 44(2): 183-193.
8. 양승호 외, 2014. “도시 내 소득의 공간적 양극화가 도시민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3): 19-32.
9. 유치선 · 이수기, 2015. “근린환경, 사회적 자본,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토계획」, 50(7): 5-23.
10. 조혜민 · 이수기, 2016. “근린환경특성과 주민의 보행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4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1(6): 59-77.
11. 천현숙, 2004.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4): 215-247.

12. Alesina, A. and La Ferrara, E., 2000. "Participation in Heterogeneous Communit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3): 847 - 904.
13. Allport, G.,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14. Atkinson, R. and Kintrea, K., 2001. "Disentangling Area Effects: Evidence from Deprived and Non-deprived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38(12): 2277-2298.
15. Bécares, L., Stafford, M., Laurence, J., and Nazroo, J., 2011. "Composition, Concentration and Deprivation: Exploring Their Association with Social Cohesion among Different Ethnic Groups in the UK", *Urban Studies*, 48(13): 1 - 17.
16. Blumer, H., 1958.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1): 3-7.
17. Bramley, G. and Power, S., 2009. "Urban Form and Social Sustainability: the Role of Density and Housing Type",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36: 30-48.
18. Brueckner, J. and Largey, A., 2008. "Social Interaction and Urban Sprawl", *Journal of Urban Economics*, 64: 18-34.
19. Buck, N., 2001. "Identifying Neighbourhood Effects on Social Exclusion", *Urban Studies*, 38(12): 2251-2275.
20. Cheong, H., Edwards, R., Goulbourne, H., and Solomos, J. 2007. "Immigration, Social Cohesion and Social Capital: A Critical Review", *Critical Social Policy*, 27(1): 24-49.
21. Churchman, A., 1999. "Disentangling the Concept of Density",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3: 389-411.
22.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95-S120.
23. Coser, L., 1956.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Routledge.
 24. Costa, D. and Kahn, M., 2003. “Civic Engagement and Community Heterogeneity: An Economist’s Perspective”, *Perspectives on Politics*, 1(1): 103 - 111.
 25. Dempsey, N., 2008. “Does Quality of the Built Environment Affect Social Cohesion?”,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 Urban Design and Planning*, 161(3): 105-114.
 26. Ford, R., 2008. “Is Racial Prejudice Declining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9(4): 609 - 636.
 27. Freeman, L., 2001. “The Effects of Sprawl on Neighborhood Social 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7(1): 69-77.
 28. Fukuyama, F.,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5): 89-103.
 29. Gesthuizen, M., van der Meer, T., and Scheepers, P., 2009. “Ethnic Diversity and Social Capital in Europe: Tests of Putnam’s Thesis in European Countrie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2(2): 121-142.
 30.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31. Kleinhans, R., Premus, H., and Engbersen, G., 2007.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in Recently Reconstructed Urban Neighborhoods: Two Case Studies in Rotterdam”, *Urban Studies*, 44: 1069-1091.
 32. Laurence, J., 2011. “The Effect of Ethnic Diversity and Community Disadvantage on Social Cohesion: A Multi-Level Analysis of Social Capital and Interethnic Relations in UK Communi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1): 70 - 89.

33. Leigh, A., 2006. "Trust, Inequality and Ethnic Heterogeneity", *The Economic Record*, 82(258): 268 - 280.
34. Letki, N., 2008. "Does Diversity Erode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Race in British Neighbourhoods", *Political Studies*, 56: 99 - 126.
35. Levine, R. and Campbell, D., 1972. *Ethnocentrism: Theories of Conflict, Ethnic Attitudes and Group Behavior*, New York:Wiley.
36. Leyden, K., 2003. "Social Capital and the Built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Walkable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9): 1546-1551.
37. Marschall, M. and Stolle, D., 2004. "Race and the City: Neighborhood Context and the Development of Generalized Trust", *Political Behavior*, 26(2): 125 - 154.
38. Murie, A. and Musterd, S., 2004. "Social Exclusion and Opportunity Structures in European Cities and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41(8): 1441-1459.
39. Musterd, S., 2008. "Residents' Views on Social Mix: Social Mix, Social Networks and Stigmatisation in Post-war Housing Estates in Europe", *Urban Studies*, 45(4): 897-915.
40. Musterd, S. and Andersson, R., 2005. "Housing Mix, Social Mix, and Social Opportunities", *Urban Affairs Review*, 40(6): 761-790.
41. Musterd, S. and De Winter, M., 1998. "Conditions for Spatial Segregation: Some European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2(4): 665-673.
42. Ostendorf, W., Musterd, S., and De Vos, S., 2001. "Social Mix and the Neighbourhood Effect. Policy Ambitions and Empirical Evidence", *Housing Studies*, 16(3): 371-380.

43. Ostrom, E., 1999. "Coping with Tragedies of the Common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 493-535.
44. Pettigrew, T.,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65 - 85.
45. Pettigrew, T. and Tropp, L.,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46.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47. Putnam, R.,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48.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49. Putnam, R., 2007. "E Pluribus Unu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2006 Johan Skytte Prize Lectur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137 - 174.
50. Reardon, S. and O'Sullivan, D., 2004. "Measures of Spatial Segregation", *Sociological Methodology*, 34(1): 121-162.
51. Rothwell, J., 2012. "The Effects of Racial Segregation on Trust and Volunteering in US Cities", *Urban Studies*, 49(10): 2109 - 2136.
52. Sarkissian, W., 1976. "The Idea of Social Mix in Town Planning: An Historical Review", *Urban Studies*, 13: 231-246.
53. Semyonov, M. and Glikman, A., 2009.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Contacts, and Anti-Minority Attitudes in European Socie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6): 693-708.
54. Simmel, 1950.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London; New York: The Free Press Glencoe.

55. Stolle, D. and Harell, A., 2013. "Social Capital and Ethno-Racial Diversity: Learning to Trust in an Immigrant Society", *Political Studies*, 61(1): 42 - 66.
56. Stolle, D., Soroka, S., and Johnston, R., 2008. "When Does Diversity Erode Trust? Neighborhood Diversity, Interpersonal Trus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Interactions", *Political Studies*, 56(1): 57 - 75.
57. Sturgis P., Brunton-Smith I., Read S., and Allum N., 2011. "Does Ethnic Diversity Erode Trust? Putnam's 'Hunkering-Down' Thesis Reconsidered",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1): 57 - 82.
58. Sturgis, P., Brunton-Smith, I., Kuha, J., and Jackson, J.. 2014. "Ethnic Diversity, Segregation and the Social Cohesion of Neighbourhoods in London", *Ethnic and Racial Studies*, 37(8): 1286-1309.
59. Uslander, E., 2011. "Trust, Diversity, and Segre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Comparative Sociology*, 10: 221-247.
60. Vergolini, L., 2011. "Social Cohesion in Europe: How Do the Different Dimensions of Inequality Affect Social Cohe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2(3): 197-214.
61. Vervoort, M., 2012. "Ethnic Concentration in the Neighbourhood and Ethnic Minorities' Social Integration: Weak and Strong Social Ties Examined", *Urban Studies*, 49(4): 897-915.
62. Vervoort, M., Flap, H., and Dagevos, J., 2011. "The Ethnic Composition of the Neighbourhood and Ethnic Minorities' Social Contacts: Three Unresolved Issu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5): 586 - 605.
63. Wood, L., Giles-Corti, B., and Bulsara, M., 2012. "Street Apart:

Does Social Capital Vary with Neighborhood Design?”, Urban Studies Research, 2012: 1-11.

[학위 논문]

1. 이선화, 2007.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서정현, 2014. “외국인 거주자 밀집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이석준, 2014.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국토연구원, 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I).

서울연구원, 2010.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부 록

〔부록 표 - 1〕 출산국가별 분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기준

국가명	소득수준(USD)	분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한국계중국인	#N/A	#N/A
중국	8,280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미국	55,904	Advanced Economies
대만	22,083	Advanced Economies
베트남	2,17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일본	32,481	Advanced Economies
기타	#N/A	#N/A
몽골	4,179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필리핀	2,95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우즈베키스탄	2,130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프랑스	37,728	Advanced Economies
인도	1,688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캐나다	43,935	Advanced Economies
영국	44,118	Advanced Economies
러시아	8,447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독일	41,267	Advanced Economies
타이	5,426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파키스탄	1,427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네팔	75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인도네시아	3,416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홍콩	42,097	Advanced Economies
캄보디아	1,140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말레이시아	10,073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오스트레일리아	51,642	Advanced Economies
나이지리아	2,758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방글라데시	1,266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사우디아라비아	20,139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카자흐스탄	11,028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미얀마	1,269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싱가포르	53,224	Advanced Economies
이탈리아	29,847	Advanced Economies
터키	9,290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남아프리카공화국	5,784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이란	5,048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스리랑카	3,768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네덜란드	44,333	Advanced Economies
뉴질랜드	36,963	Advanced Economies
브라질	8,802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키르기스스탄	1,198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스웨덴	48,966	Advanced Economies
우크라이나	2,109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아일랜드	48,940	Advanced Economies
스위스	82,178	Advanced Economies

Abstract

The Effects of Foreigners' Inflow on Social Trust

Ha, Seung-Hyun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existence of heterogeneous groups,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race, ethnicity, language, religion, socioeconomic status, etc., has caused various social debates. A discussion focusing on the negative aspects such as hostility toward heterogeneous groups stemming from mutual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and conflicts between groups, as well as discussions on the positive aspects such as tolerance and inclusion of heterogeneous groups through mutual contact or cooperation can be said to represent thi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experienced group heterogeneity in the past, they have been interested in the effects of ethnic diversity and income disparity in the community on individuals and group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n society, this is because Korean society has maintained a single ethnicity fo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In recent years, however,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are staying in Korea for various purpos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This means that diversity such as race, ethnicity, language, religion, socioeconomic statu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social trust fluctuation in the local community among the various changes of Korean society that can be caused by the influx of foreigners. In order to avoid the mistake of recognizing all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s homogeneous group, Residence area, income level,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Through this, foreigners were classified into specific groups. Also, based on the housing prices that can be represented by the average income level in the region, the analyzed administrative districts of 424 administrative districts in Seoul are largely classified into upper, middle, and lower regions, and the distinction of social trust fluctu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foreigners staying in Korea with the status of residence related to employment, permanent residence, marriage immigration, visiting cohabitation, residence and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ies were found to negatively affect the social trust of Koreans. It is found that foreigners who are staying for the same educational purpose and who are staying for investment purpose such as companion, other, and corporate investment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trust.

This seems to be due to the prejudice and prejudice of the Koreans toward the foreigners who entered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and this seems reasonable when it is associated with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foreigner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ocial trust fluctuation due to the inflow of foreigners in the lower, middle, and upper areas based on the average house prices by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social trust of the Koreans living in sub-regions without any damage has been negatively affected by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The impairment of social trust due to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only in areas where housing prices are relatively low means that they are in everyday contact with foreign workers and that they are more socially and economically related than those who do not share their daily lives. Which means that it can potentially damage the trust of foreigners as well as strangers who can not be identified.

The impairment of social trust due to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is potentially a solution to the problem. This is because the attitude toward foreigners, in other words,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percentage of foreigners who stay for investment or education purposes, but it is understood that as the ratio of foreign workers' groups increases, the perception that foreigners can be accepted as family, friends and so on becomes stronger.

keywords : Social Trust, Foreigner, Heterogeneity, Conflict

Hypothesis, Contact Hypothesis, Contextual Effect

Student Number : 2011-30273